언론사: 문화일보-2-200.txt

제목: 퇴행성 질환 실험용 동물모델 세계 첫개발  
날짜: 20170306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6141006004  
ID: 01100501.20170306141006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식약처 용역사업 성과 <br/><br/>암·치매 원인 규명 활용<br/><br/><br/><br/>국내 연구진이 암·치매 등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실험용 동물모델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br/><br/><br/><br/>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내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변형시켜 퇴행성 질환 등을 일으킨 후 이를 원인 규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쥐 동물모델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식약처 연구사업단 용역 과제로 박희성 카이스트 교수와 박찬배 아주대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해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게재됐다.<br/><br/><br/><br/>개발된 동물모델은 수정 후 모체에서 성장하는 과정이나 간·폐 등 특정 조직 및 기관에서 ‘표적 단백질’(변형을 통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기관 속의 단백질)을 비정상적으로 변형해 암·치매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br/><br/><br/><br/>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2만여 종의 단백질은 생·합성 후 아세틸화·인산화·당화 등의 정상적 변형을 거치면 세포 신호 전달이나 성장 등 신진대사 활동 조절을 한다.<br/><br/><br/><br/>그러나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이 일어나면 암·치매·당뇨 등 중증 질환을 일으키게 된다. 질환 모델 동물은 신약개발 연구에 활용돼 성공률을 높이고 연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0'>이번 동물모델은 암·치매 등 질병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맞춤형 표적항암제 및 뇌 신경치료제 등 글로벌 신약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1.txt

제목: <신남식 교수의 반려동물 이야기>시각장애인 안내·인명구조… 고마운 도우미犬  
날짜: 2017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6121006007  
ID: 01100501.20170306121006007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반려동물 특히 개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여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개를 도우미견 또는 서비스도그(service dog)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일부 연구, 활용되고 있다.<br/><br/><br/><br/>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맹인안내견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장애인의 독립된 삶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1920년대 독일과 미국에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1990년대 국내 대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200여 마리를 분양했고 60여 마리가 활동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산악 조난, 건물 붕괴, 눈사태 등으로 실종된 사람의 위치를 찾도록 특수하게 훈련된 인명구조견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시작돼 주로 119구조대에서 많은 활동과 구조업적을 이뤘고, 현재는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의 인명구조견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br/><br/><br/><br/>청각도우미견은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인지해 장애인에게 알려줘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 이 경우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도 수화를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도와주는 도우미견이 있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농산물이나 식품을 검색하거나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는 해충을 탐지하는 탐지견도 있다. 이외에도 개의 후각 능력을 이용해 발작 환자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거나 암 환자를 가려내는 탐지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br/><br/><br/><br/>반려동물의 특수한 능력이 인간사회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은, 인간이 반려동물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해야 할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br/><br/><br/><br/>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2.txt

제목: <이 책>작은 친구들 등  
날짜: 201703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3104005007  
ID: 01100501.20170303104005007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작은 친구들(도나 타트 지음, 허진 옮김／은행나무) = ‘황금방울새’ ‘비밀의 계절’의 저자 도나 타트의 장편소설. 1960년대 미시시피의 어느 작은 마을, 어머니날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아홉 살 로빈이 마당에서 목 매달린 채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한다. 개인의 슬픔을 내밀히 그리며 비극이라는주제를 재확인하게 하는 작품이다. <br/><br/>★대통령 복도 지지리 없는 나라(오홍근 지음／산해) = 3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 일한 저자가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은 ‘세설(世說)’집. 현 시국과 관련해 우리 국민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지도자를 잘 뽑기 위한 각성을 촉구한다. 이번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과정이 새로운 기회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며 희망을 말한다.<br/><br/>★유전자의 내밀한 역사(싯다르타 무케르지 지음, 이한음 옮김／까치) = 삼촌과 사촌이 조현병 환자로 유전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의사가 멘델의 완두콩에서부터 유전자 편집 치료까지, 유전자를 쫓는 연구자의 흥미진진하고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전작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로 퓰리처 상을 받은 저자는 해박한 지식으로 유전자의 세계로 흥미롭게 인도한다. <br/><br/>★대도서관 잡쇼(대도서관 지음／ 드림리치) = EBS에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방송됐던 동명의 프로그램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대도서관은 15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대도서관 TV’의 게임 방송 진행자다. 대도서관이 청소년의 롤모델이 될 만한 직업인 멘토 23인을 소개한다. 셰프 최현석, 웹툰작가 주호민, 광고기획자 이제석 등이다.<br/><br/>★지금 당신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이원재·황세원 지음／서해문집) =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은 단군 이래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 모두 절망과 좌절, 고통을 말하지만 정작 ‘이렇게 바꾸자’는 외침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내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경제·사회·정치·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 11인을 만나 심층 인터뷰했다.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3.txt

제목: 삼육대, 혈액검사만으로 암세포 찾아내는 진단칩 개발  
날짜: 20170302  
기자: 임대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2173005001  
ID: 01100501.201703021730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삼육대 연구팀이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암 진단과 환자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암세포 진단칩을 개발했다<br/><br/><br/><br/>삼육대는 박명환(사진) 화학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미국 MIT공대와 하버드의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암세포 진단칩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박 교수 연구팀은 암 진단마커가 고정된 금나노입자를 함유하는 미세유체칩을 활용해 혈액 속에 떠도는 극소수의 혈중순환종양세포를 분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상 없이 다시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암세포 진단칩을 개발했다. 최근 학계에서는 원발성 종양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 속을 떠돌며 암을 전이시키는 혈중순환종양세포를 암 전이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분리하고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r/><br/><br/><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활용하면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수집된 세포를 분석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을 진행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암 진단 및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널인 ‘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2월 22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br/><br/><br/>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4.txt

제목: 중견 탤런트 민욱 씨 별세  
날짜: 2017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302153005017  
ID: 01100501.20170302153005017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민욱 씨가 지난 1일 별세했다. 70세.<br/><br/><br/><br/>고인은 1년 반 전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다가 이날 세상을 떠났다. 1969년 KBS 8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를 시작한 고인은 ‘용의 눈물’ ‘태조 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등에서 선 굵은 연기를 펼쳤으며 1976년에는 영화 ‘강력계’에서 주연을 맡았다. 가장 최근작은 2010년 주말극 ‘결혼해주세요’다.<br/><br/><br/><br/>유족으로는 부인 박정옥 씨와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 순천향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4일 오전 7시 40분 02-798-1421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5.txt

제목: 건강식품 과대광고한 블로거 첫 고발 조치  
날짜: 20170228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8145005002  
ID: 01100501.20170228145005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과대광고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이 처음으로 무더기 고발조치를 당했다.<br/><br/><br/><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br/><br/><br/><br/>전남 담양군 A 업체와 경남 사천시 B 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 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로 제조됐음에도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해 광고했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합성비타민C(L-ascorbic acid)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이 사용됐다.<br/><br/><br/><br/>경기 화성시 C 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또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 등이 함유된 제품에 ‘無화학첨가물’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br/><br/><br/><br/>식약처는 특히 이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한 56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품 당국이 실정법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체가 아니라 개인 블로그 운영자를 허위 과대광고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블로그에는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등 공포를 자극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광고내용이 그대로 실렸다.<br/><br/><br/><br/>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적발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금품을 받고 사실상 허위 과대광고를 대신해주는 개인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발했다</span>”고 말했다. 구체적 위반업체와 허위 과대광고 제품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6.txt

제목: 달을 낳는 ‘근육질 화강암’에 오르다  
날짜: 20170228  
기자: 박경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8144005005  
ID: 01100501.20170228144005005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기기묘묘’ 남도名山 영암 월출산<br/><br/><br/><br/>‘수반 위에 올려 놓은 기기묘묘한 형상의 수석’. 전남 영암 월출산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월출산은 남도의 너른 평야 위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다른 산에 능선을 기대지 않고 저 홀로 서서 뜨거운 화염처럼 혹은 거친 파도처럼 일렁이는 화강암 봉우리를 거느리고 있는 산이지요. <br/><br/><br/><br/>월출산에는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접근 불가의 코스가 있었습니다. 가장 거친 암봉이 길게 이어진 북쪽 능선의 산성대를 넘어가 정상으로 향하는 코스입니다. 산성대 코스는 198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다가 27년 만인 지난 2015년 10월에 열렸습니다. 말이 27년이지 사실 성난 사자의 갈기 같은 암릉을 타고 오르는 이 탐방로는 그 이전에도 접근 불가의 길이었습니다. 탐방로를 조성하면서 철계단과 난간을 놓아 겨우 접근이 가능하게 된 지금도 그 앞에 서면 오금이 다 저릴 정도입니다.<br/><br/><br/><br/>이른 봄에 월출산을 찾아 가장 거친 코스를 골라 오르기로 했던 건 그곳이 남도의 거대한 들을 마주 볼 수 있는 뛰어난 조망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순한 길을 골라서 오를 때 거친 암봉에만 눈이 머물렀지만, 거친 암릉 길로 오르자 비로소 순한 남녘의 너른 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성대 코스를 오르는 내내 등 뒤로는 초록의 기운이 번져가는 영암의 너른 들과 유순한 영산강의 물줄기가 펼쳐졌고, 정상에 오르자 멀리 해남과 강진의 푸른 바다가 봄볕에 반짝였습니다. <br/><br/><br/><br/>똑같은 산임에도 그 길을 바꾸자 보이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순한 길에서는 거친 것이, 거친 길에서는 순한 것들이 눈길을 붙잡았던 것이지요. 길 하나가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꿉니다. 월출산에서 굽어본 남도의 평야에 가득한 봄기운이 더 소중하고 각별했던 것은, 정상의 나뭇가지 끝에 수정처럼 꽝꽝 얼어붙은 상고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릿발 같은 추위 속에서 봄은 더 소중했던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사는 일도 산을 오르는 것과 무어 그리 다를 게 있겠습니까. <br/><br/># 범접할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한 산 <br/><br/><br/><br/>전남 영암 월출산의 이름은 자그마치 열셋이나 된다. 하나의 산에 이렇듯 이름이 여럿이다. 영암 쪽에서 보면 달이 이 산에서 생겨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월생산(月生山)’이라고도 했고, 산 위로 뜬 달이 보배같다고 해서 ‘보월산(寶月山)’이라고도 불렀다. 화개산, 금저산, 천불산, 지제산, 월산, 낭산 등도 다 월출산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었다. <br/><br/><br/><br/>월출산의 위세는 과거에 더 대단했던 모양이었다. 지금이야 규모가 작아서인지 전국 24개 국립공원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낮은 축에 들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이 산의 명성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월출산을 일러 ‘본국 밖에서는 화개산이라 칭한다’는 문장이 있다. 산 이름에 ‘빛날 화(華)’에 ‘덮을 개(蓋)’란 이름을 쓴 건 문수보살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구름이 월출봉 정상 위에 떠서 빛났기 때문이었다고 전해진다. <br/><br/><br/><br/>그때만 해도 월출산은 오르는 산이 아니라 ‘보는 산’에 가까웠을 것이었다. 사방 백 리에 큰 산이라고는 없는 너른 평원 위에 거칠고 험준한 바위들로 솟은 장대한 돌산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으로 가득하다. 경사를 누이고 비탈에 밧줄을 매고 거친 구간마다 철제 덱과 구름다리를 놓은 지금도 아찔한데, 과거에는 오죽했을까. 조선시대 선비들이 금강산이며 지리산 같은 큰 산을 수없이 유람하며 산행기를 남겼음에도, 월출산에 대해서는 먼발치에서 경탄한 기록이 전부이고 산행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br/><br/><br/><br/>조선 명종 때의 문인 김극기가 남긴 “<span class='quot0'>푸른 낭떠러지와 자색 골짜기에는 만 떨기가 솟고 첩첩한 봉우리는 하늘을 뚫어 웅장하며 기이함을 자랑한다</span>”는 글도, 김시습이 월출산을 찾아 “<span class='quot0'>호남에서 제일 가는 그림 같은 산이 있으니 달은 청천에 뜨지 않고 산간을 오르더라</span>”고 쓴 것도, 다산 정약용이 월출산의 산정을 묘사하며 ‘높다란 뿔 하나가 창공에 꽂혀있어’라고 쓴 것도 모두 산 ‘속’이 아닌 산 ‘밖’에서 쓴 글이었다. 월출산이야 말로 오르거나 유람하는 산이 아니라, 아찔한 위용으로 서서 푸른 밤마다 달을 낳는 신령스러운 산이었던 것이었다.<br/><br/><br/><br/>월출산이 품고 있는 ‘영암’이란 마을 이름도 스스로 움직이는 바위(動石)를 산 아래로 떨어뜨리자 그 중 하나가 스스로 올라왔다고 해서 ‘영묘할 영(靈)’ 자에 ‘바위 암(岩)’ 자를 써서 붙인 이름이다. 바위도, 그 바위가 이룬 산도, 그리고 그 산을 거느린 마을도 모두 범접할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했다는 뜻이다. <br/><br/># 월출산을 만나러 가는 방법 <br/><br/><br/><br/>월출산은 영산강을 끼고 있는 영암평야와 나주평야의 너른 들에 우뚝 솟아 있다. 영암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목포에서도, 화순에서도, 나주에서도 월출산은 보인다. ‘월출산에 간다’는 건 두 발로 산을 오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월출산은 산에 발을 들이기 전에 눈으로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 <br/><br/><br/><br/>월출산은 멀찌감치서부터 제 존재를 드러낸다. 방향을 가늠하거나 지도를 펴고 확인해볼 필요도 없다. 저지대의 평야 위에서 험준하게 솟구친 비범한 산세를 만난다면 그게 바로 월출산이다. 남도 땅으로 접어들어 달리다가 홀연히 기암의 산 하나가 나타나 ‘저게 월출산인가’ 싶다면 십중팔구 맞다. 산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도 먼발치서 산의 형상을 발견하고 차츰 산 앞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다면 이미 월출산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전남 장성의 국도에 접어들자 아득하게 월출산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거리를 가늠해보니 자그마치 70㎞ 밖이다. 그때부터 길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월출산의 모습은 달라졌다. 남쪽으로 시야가 트일 때마다 월출산은 기기묘묘한 수석처럼 떠올랐다.<br/><br/><br/><br/>영암 땅에 들어서면 산 정상의 능선을 따라 불꽃처럼 타오르는 근육질의 화강암 바위 앞에서 입이 딱 벌어진다. 암봉 사이로 봉긋하게 솟은 해발 809m의 천황봉이 아득하다. 아직 봄기운이 당도하지 않은 까마득한 산정에는 아침마다 나뭇가지 끝에 얼어붙은 상고대가 순백으로 반짝인다. 이즈음 월출산은 수많은 암봉이 마치 기름칠을 한 듯 번들거린다. 얼어붙은 바위들이 녹아내리는 중이라서 그렇다. <br/><br/><br/><br/>월출산을 찾아 영암 땅에 당도했다면 뒤로 물러서서 산의 지세부터 봐야 한다. 월출산에 들어서기 전에 마치 섬의 실루엣으로 평야 위에 떠 있는 산의 형상을 만나는 게 순서라는 얘기다. 영암에는 월출산과 마주 보는, 월출산 높이의 딱 절반쯤 되는 백룡산이 있다. 백룡산의 발치인 덕진면 운암리의 송석정 마을에 ‘덕진 차밭’이 있다. 1979년 순수 재래종 차나무를 심어 조성한 제법 너른 차밭이다. 차밭의 연둣빛 새순은 아직 멀었지만 덕진 차밭에서 봐야 할 것은 차밭이 아니라 그 너머로 펼쳐지는 월출산의 산세다. 차밭 너머로 운암리 일대의 들녘이 마치 바다처럼 펼쳐져 있고, 멀리 월출산이 그 바다 위에 섬처럼 떠 있다. 산 하나의 형상이 그림처럼 또렷하다. 산에 오르기 전에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풍경이다. <br/><br/><br/><br/> <br/><br/><br/><br/># 기암의 한복판, 가장 험한 길을 택하다<br/><br/><br/><br/>이제 월출산으로 들어간다. 깎아지른 아슬아슬한 암봉들이 늘어선 험준한 월출산의 깊숙한 골짜기를 처음 찾아 들어갔던 건 종교와 신앙이었다. 월출산에는 99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남아있는 것만 해도 불상과 석탑, 승탑이 각각 10개씩, 비석 7개, 석조물 5개가 있다. 1987년 광주 민학회는 월출산 곳곳에서 40여 개의 절터를 확인했고, 뒤이은 문화재청 조사에서도 33곳의 절터와 사찰이 확인됐다. 전남 지역에서 하나의 산에 가장 많은 불교문화 유산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이 거대한 바위산이 한때 수많은 절집들로 불국토를 이루었을 것이니 월출산은 옛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br/><br/><br/><br/>월출산의 정상인 천황봉에는 소사(小祀) 터의 자취도 남아있다. 소사란 ‘작은 제사’를 말하는데, 신라 때 명산 대천에 제사를 대, 중, 소로 나눠 지냈다. 경주 부근의 명산에서는 큰 제사(大祀)를, 백두산·금강산·묘향산·지리산·삼각산 등 오악에서는 중간 제사(中祀)를 지냈고, 월출산 등의 명산에서 작은 제사(小祀)를 지냈다. 옛 사람들이 이 아찔한 벼랑 끝의 천황봉까지 올라와 제사를 지냈던 건 그만큼 기원이 간절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아찔한 천길 벼랑으로 우뚝 솟은 산은 유람이 아닌 종교와 기원의 이름으로 비로소 다가설 수 있었다. 월출산 절집에서의 구도 수행, 제사의 신묘한 영험은 이렇게 닿기 힘든 곳이어서 가능했을 것이었다. 이렇듯 목숨을 내걸다시피 가야 닿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고통의 끝에서 자신의 소원이 하늘에 닿는다고 옛 사람들은 믿었을 것이었다. <br/><br/><br/><br/>월출산을 오르는 길. 국립공원 지정 후에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가 지난 2015년 10월 개방한 ‘산성대 코스’를 망설임 없이 택했던 건 영암에서 올려다본 기암의 한복판으로 오르는 길이자, 가장 험준한 코스였기 때문이었다. 산행의 들머리가 영암읍에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니 옛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이 길로 오르내렸을 것이었다. 이 비범한 산중에다 달아맬 소원이 있거나 거대한 화강암이 뿜어내는 기(氣)를 받고자 한다면 산성대 코스를 택할 일이다. <br/><br/># 성난 사자의 갈기 같은 바위를 넘어가는 길 <br/><br/><br/><br/>산성대 탐방로 코스의 입구는 영암읍의 남쪽에 조성해 놓은 월출산 둘레길인 ‘기찬뫼길’의 들머리와 겹쳐진다. 산자락을 횡으로 감아 도는 둘레길에서 곧바로 수직의 탐방코스가 시작된다. 들머리에서 해발 471m의 산성대까지는 천천히 고도를 높이는데, 이 구간에서 눈길을 붙잡는 건 산이나 암봉이 아니라 거대한 들판이다. 오름길에서 뒤돌아보면 바위 아래로 영암 일대의 너른 들이 한눈에 펼쳐진다. 영산강의 물줄기는 물론이고, 목포 앞바다까지 광활하게 펼쳐지는 평야가 넓어도 이렇게 넓을 수 없다. 푸릇푸릇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한 논과 갈아낸 붉은 황토 흙의 밭이 마치 기워놓은 조각보 같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탐방로 구간 내내 뒤를 돌면 이런 경관이 펼쳐진다. <br/><br/><br/><br/>탐방로의 딱 중간쯤에 있는 산성대는 월출산의 봉수대를 일컫는 말이었다. 월출산 봉수대는 산 정상이 아니라 해발 471m의 산성대에 있었다. 기암의 아슬아슬한 절벽을 타 올라야 하는 정상에다 봉수대를 놓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산성대 입구의 바위에는 ‘월출제일관(月出第一關)’이라는 음각의 글씨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다. 음각이 새겨진 바위는 ‘문바위’라고 불리는데 문을 단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전해진다. <br/><br/><br/><br/>문바위를 지나면 거대한 돌문 형상의 바위가 나타난다. 마치 고인돌처럼 생긴 바위인데 어찌나 고인돌과 닮았는지 자연이 저 스스로 만들어낸 경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산 전체가 바위인 월출산에 기묘한 형상의 수많은 기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한 곳이다. 월출산에는 수많은 비경이 있고, 그만큼 위험한 구간도 많다. 위험한 경계에 위치한 절경이 많다는 뜻이다. <br/><br/><br/><br/>산성대 코스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자 최고의 절경이라면 문바위를 지나 천황사 코스와 길이 합쳐지는 광암터까지 이르는 구간에 있다. 이 구간에서 줄곧 성난 사자의 갈기 같은 암봉을 타고 넘는다. 아찔한 벼랑마다 난간을 세워두고 바위와 바위를 타 넘는 자리에는 철제 덱을 놓아두었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면 감히 오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구간이다. 산성대 코스가 정비되기 전에 이쪽에다 발을 디딘 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br/><br/><br/><br/>너른 바위가 펼쳐진 광암터에서 산성대 코스는 월출산을 찾는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택하는 천황사 코스와 만나 정상까지 이어진다. 좁은 바위 문인 통천문을 지나 월출산의 정상인 천황봉에 올라서면 발 아래로는 거친 암봉의 능선이 뻗어있고, 고개를 들면 북쪽으로는 거대한 평야와 목포 앞바다가, 남쪽으로는 해남과 강진의 바다가 펼쳐진다. 천황봉 정상에서 만나는 풍경의 장쾌한 규모감은 다른 산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다. <br/><br/><br/><br/>이제 막 봄 기운이 번져가고 있는 영암 땅에는 신라말 도선국사의 자취가 깃든 자그마치 2200년 내력의 구림마을도 있고, 백제 왕인박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갑사가 있으며, 월출산 반대편 강진에도 산자락 가득 푸르른 차밭과 다산 정약용이 노닐던 백운동, 그윽한 정취의 옛 절 월남사 터, 그리고 천년고찰 무위사가 있다. 모두 다 월출산이 낳은 것들이다. 그러니 영암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월출산을 오르고 산자락을 더듬는 것만으로도 봄날의 여정은 충분하다.<br/><br/><br/><br/>영암 = 글·사진 박경일 기자 parking@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7.txt

제목: <하상도 교수의 식품 오디세이>‘삼겹살+상추쌈’ 찰떡궁합 근거 있다  
날짜: 20170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8142006011  
ID: 01100501.2017022814200601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삼겹살은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 음식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미세먼지나 중금속 해독에 좋다’ ‘탄 부분만 잘라 버리고 먹거나 채소로 쌈 싸 먹으면 괜찮다’는 긍정적 이야기도 있고, ‘탄 삼겹살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는 부정적 소문도 많다. <br/><br/><br/><br/>고기가 탈 때 생기는 발암물질 때문인데, 음식을 3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조리하면 발생한다. 발암 원인인 벤조피렌은 삼겹살, 프라이드 치킨 등 육류에서 주로 나온다. 벤조피렌이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웰빙식품으로 뜨던 ‘올리브유’에서 다량 검출돼 매스컴을 타면서부터다. 또한 참기름,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금지되거나 리콜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2012년에는 한 라면 회사의 스프에 함유된 훈연(smoking) 가다랑어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기도 했다.<br/><br/><br/><br/>벤조피렌은 담배 연기의 폐암 유발이 입증되면서 발암물질로 규정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로 석탄이나 석유의 콜타르에서 주로 발생한다. 나무를 태우거나 자동차 배기가스, 담배 연기 등에서도 다량 발견된다. 또 대기, 물, 토양 등 어디에나 존재하므로 농산물, 어패류 등 가공하지 않은 원료 식품에 미량이나마 항상 존재한다. 특히,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분해되면서 생성되기 때문에 주로 고기를 굽거나 커피, 땅콩처럼 음식을 볶을 때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삼겹살을 노릇하게만 구워도 약 16ppb(1ppb=1/1000PPM)가 검출되고, 갈비를 좀 강한 불에 구우면 50∼480ppb까지 검출된다고 한다. 벤조피렌은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유도한다.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 피부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킨다. <br/><br/><br/><br/>벤조피렌을 섭취하지 않기 위해선 기름에 튀기거나 볶거나 스모킹한 음식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또 불꽃이 직접 닿지 않고 검게 타지 않도록 고기를 굽는 것도 필요하다. 고기의 탄 부위는 ‘벤조피렌 덩어리’라 반드시 잘라 내고 먹어야 한다. 삼겹살, 숯불구이, 바비큐, 스테이크 등 고기의 지방성분과 불꽃이 직접 접촉할 때 벤조피렌이 가장 많이 생기므로 숯불에 직접 닿는 석쇠 대신 프라이팬에 굽는 것이 좋다. 불판을 미리 뜨겁게 가열한 뒤 고기를 올려 구우면 가열 조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벤조피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고기를 익힐 때 ‘삶기와 찌기’를 적극 활용하면 더 줄일 수 있는데, 설렁탕과 삼계탕에선 벤조피렌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 예로부터 ‘구이는 동, 수육은 금’이라는 말이 있는 데, 이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왕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벤조피렌을 줄이는 섭취요령으로는 최근 식약처에서 제안한 ‘상추, 마늘, 양파와 함께 쌈을 싸먹는 것’이다. 즉 이들 채소가 독성을 떨어뜨려 발암가능성을 줄인다는 것인데, 삼겹살 벤조피렌의 간세포 발암가능성을 상추는 60%, 양파는 40%, 셀러리는 20% 줄여준다고 한다. 특히 마늘에 들어있는 미리세틴 성분도 발암가능성을 65%나 낮춘다고 한다. <br/><br/><br/><br/>다행히도 우리 국민의 고기, 식용유지 등 음식 섭취를 통한 벤조피렌 노출 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벤조피렌은 건강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물질이라 피할 수만 있다면 덜 먹는 것이 좋다. 우리가 벤조피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지만, 조리법과 섭취방법만 살짝 바꿔도 그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br/><br/><br/><br/>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8.txt

제목: < Her Story >“누군가에게 밥 차려주는 게 나한테도 위안이 되더라”  
날짜: 20170228  
기자: 김인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8114006001  
ID: 01100501.20170228114006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스페인 레스토랑 연 소설가 천운영<br/><br/><br/><br/>“미겔 데 세르반테스(1547∼1616)의 ‘돈키호테’와 윌리엄 셰익스피어(1564∼1616)의 ‘햄릿’이야말로 16∼17세기 유럽 문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돈키호테는 정말 훌륭한 소설이다.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원형이 그 안에 이미 다 포함돼 있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나? 돈키호테가 실은 음식 소설이라는 점이다. 글을 쓰는 제가 식당을 차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지난 14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 240-29번지 2층 주택건물의 스페인 레스토랑 ‘라 메사 델 돈키호테’(돈키호테의 식탁). 만나기로 한 천운영(46) 작가가 차를 몰고 나타나더니 반가운 듯 수줍은 듯 미소 지었다. 지난해 12월 15일 ‘돈키호테의 식탁’을 개업한 지 꼭 두 달째. 아직 레스토랑 일이 손에 익지 않아 마음만 급한 표정이 역력했다. 게다가 소설가로서의 인터뷰가 아니라 레스토랑을 연 오너 셰프로서의 인터뷰에 살짝 긴장한 듯. 그러나 돈키호테, 음식, 소설 이야기를 차례로 꺼내니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인터뷰 중간중간에 걸려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면서는 입이 귀에 걸릴 만큼 활짝 웃었다. 어머니가 지금 시장에서 장 보는 중이라면서…….<br/><br/><br/><br/>천 작가는 국내 대표적 중견 소설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레스토랑을 열게 된 배경엔 뜻밖의 사연이 있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다시 읽다가 숨어 있는 음식 이야기에 꽂히게 됐고, 음식기행과 음식점 개업으로 이어졌다는 게 그동안 일부 알려진 내용. 하지만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반려견 때문이었다.<br/><br/><br/><br/>음식기행은 ‘본업’인 글을 쓰기 위한 방편이었다.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버무리는 게 장기인 천 작가는 여행에서 받은 느낌을 글로 옮길 작정이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돌아온 어느 날, 15년간 동고동락해온 미니어처 핀셔종의 반려견 ‘민’이 죽었다. 여전히 ‘싱글’로서, 가족이나 다름없던 반려견을 잃고 천 작가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그러다가 문득 레스토랑을 열기로 결심했다.<br/><br/><br/><br/>“시간상으로는 2013년 스페인에서 한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먼저다. 그때 돈키호테를 읽으면서 푹 빠졌다. 음식 이야기가 제법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은 후 책을 쓰기로 마음먹고 이후 2년간 스페인을 오가며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했다. 그러다가 2014년 말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이 몇 번인가 발작하는 걸 봤다. 측은한 마음에 밥을 만들어주고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민이 그걸 다 먹고 배변까지 한 후에 죽었다. 부모님이 다 계시기에 주변의 아주 가까운 존재가 사라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너무 충격이 컸다. 내가 어떤 죽음에 대해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았다. 불현듯 민이 마지막으로 밥 먹은 모습이 떠올랐고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됐다. 내가 뭐라도 해준 느낌이랄까.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게 나한테도 위안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br/><br/><br/><br/>그러나 막상 레스토랑 일은 만만치 않았다. 지난 두 달간 허둥지둥했다. 처음엔 오전 10시에 레스토랑에 출근해서 점심 손님을 받고, 다시 오후 3시부터 저녁 준비를 했으나 병원에 두 번 다녀온 후로는 점심 영업은 포기했다. <br/><br/><br/><br/>“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내가 주방에서 직접 다 한다. 점심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 실력에 맞게 저녁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오후 2시쯤 출근해 재료를 손질하고 테이블을 세팅한다. 영업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다. 그러나 아직도 영업시간을 모르고 점심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계시는데 죄송할 따름이다.”<br/><br/><br/><br/>사정이 이렇다 보니 손익계산서는 형편없다. 밥 해주는 것만 생각했지 비즈니스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계산도 서툴다. 적자 행진이다.<br/><br/><br/><br/>“매출액? 글쎄 아직은 어림없다. 예를 들어 ‘갑오징어 철판구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요리의 가격이 1만7000원이다. 그런데 이 가격에 맞게 하려면 시장에서 갑오징어 원재료를 5000원 이하에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그게 안 된다. 어머니가 장을 봐 주시는데 엊그제도 갑오징어 가격이 8000원인데 어쩌냐고 전화가 왔다. ‘엄마, 그냥 사’라고 했다. 이러니 늘 적자다. 양심상 싼 재료를 쓸 수는 없다. 아무래도 메뉴판 가격을 좀 올려야 할 것 같다. 그래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테니.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2년은 해봐야 하지 않겠나.”<br/><br/><br/><br/>그나마 등단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던 박찬일 셰프의 도움으로 레스토랑을 오픈할 수 있었다. 개업식 때는 직접 찾아와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도와줬다. “<span class='quot0'>소설가가 식당 하는데 ‘짜치면’ 안 된다</span>”며 도와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br/><br/><br/><br/>처음엔 “얌전히 글이나 계속 쓰라”며 반대했던 어머니도 팔을 걷어붙였다. 시장 보기와 재료 손질은 어머니 담당이다.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매일 신선한 재료를 공수해온다.<br/><br/><br/><br/>“어릴 적 아버지가 공장을 하실 때 어머니는 평생 공장 직원들의 밥을 해주셨다. 전남 순천 분이라 음식에 관한 한 저보다 훨씬 낫다. 오빠 결혼식 때는 집에서 홍어 20∼30마리를 삭혀서 피로연 음식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지금도 어머니가 하는 게 60%, 내가 하는 게 40% 정도 되는 것 같다. 괜히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그러나 때론 웃음도 난다. 어머니가 장 보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일을 핑계로 모녀가 자주 만나 대화하니 ‘이게 효도구나’ 하는 느낌도 있다. 아버지는 암 수술 후 고향인 전북 고창에 계신다. 레스토랑엔 못 오시고 내가 만든 스페인식 쇠꼬리찜과 해물죽을 보내드렸더니 맛있다고는 하시더라.”<br/><br/><br/><br/>스페인 요리를 배우기 위해 천 작가는 2013년 6개월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 후 지난해 여름까지 수시로 2∼3개월씩 스페인을 드나들며 돈키호테의 루트를 좇고, 요리법을 배웠다.<br/><br/><br/><br/>“스페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지역 문화 교류 이벤트에 참여하며 할머니들에게 한국 음식을 알려주고 나는 그들에게서 스페인 음식을 배웠다. 지난해에는 마드리드에서 3개월 동안 요리학원에 다니기도 했다. 스페인의 대표적 요리는 파에야(Paella·끓인 밥)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건 관광객용 음식이다. 정작 스페인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에서도 파에야는 안 한다. 그 대신 아로스 칼도소(Arroz Caldoso·쌀을 넣은 해물죽)를 한다. 쇠꼬리찜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얼마 전 메뉴에서 뺐다. 그밖에 토르티야(Tortilla·밀가루 파이)가 있고 산초가 좋아했던 내장탕, 염장 대구와 오렌지 샐러드, 문어와 감자, 조개술찜 등이 있다. 물론 스페인 전통 음식인 하몽(Jamon·돼지 뒷다리살)도 만든다.”<br/><br/><br/><br/>천 작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음식에 관심을 가졌다. 레스토랑을 차린다고 할 때도 주변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br/><br/><br/><br/>“개인적으론 육식주의자다. 고기를 좋아한다. 식당을 하게 될 줄은 몰랐으나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건 맞다. 지금껏 단편소설을 약 50편 정도 썼는데 음식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건 2∼3편밖에 안 된다. 그걸 보고 내가 확실히 세상을 어떤 요리로 파악하고 있다는 자각을 했다. 잔치 음식을 내는 것, 손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좋아한다.”<br/><br/><br/><br/>음식 외에도 천 작가는 그동안 여러 분야에 폭넓은 관심을 보여왔다.<br/><br/><br/><br/>지난해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 자신이 기획한 남극 세종기지 탐사 프로젝트를 다녀온 뒤였다. 윤태호 웹툰작가, 정지우 영화감독 등과 함께 남극에서 체험한 것을 필름에 담았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직접 했다. <br/><br/><br/><br/>“뭔가 기록을 남기는 일에 매력을 느낀다. 이번 스페인 음식기행 때도 영상을 찍었다. 몸에 액션 카메라인 ‘고프로’를 달고 취재했다. 글과 동시에 영상으로 남겨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샘플이 돈키호테의 식탁 페이스북에 있다. 1분짜리 동영상이다. 기회가 되면 레스토랑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영상을 틀 생각이다.”<br/><br/><br/><br/>그는 관심 영역이 다양하지만, 그것을 찾는 뿌리는 언어라는 점에서 같다고 했다.<br/><br/><br/><br/>“소설은 텍스트, 다큐멘터리는 영상 언어, 식당은 요리의 언어를 찾는 과정이다. 돈키호테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 다양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번 하면 끝까지 파 보고 싶다.”<br/><br/><br/><br/>그러면 당분간 천 작가의 문학 작품을 보긴 어려울까.<br/><br/><br/><br/>천 작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3권의 산문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첫 번째는 음식 산문집이다.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에 관한 이야기다. 음식을 만들고, 맛보고, 음식을 매개로 교류하는 이야기가 될 듯하다.<br/><br/><br/><br/>두 번째는 문학 기행집. 돈키호테 소설 속 돈키호테의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다. 바야돌리드에서 시작해 마드리드의 라만차까지 돌았다. 영상으로 기록한 분량만 3테라바이트(TB) 메모리나 된다.<br/><br/><br/><br/>세 번째는 죽은 반려견에 관한 기록이다. 죽기 몇 년 전부터 가장 가깝게 관찰한 대상을 기록에 남겼다. 스케치도 직접 그렸다. 민이 죽고 나서 묵혀뒀던 것인데 곧 마음산책에서 책으로 나올 예정이다.<br/><br/><br/><br/>“아직 소설은 못 쓴다. 소설은 오로지 소설만 생각하고 집중해야 나오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 대신 앞으로 2년간 3권의 산문집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소설은 이 레스토랑의 운명과 같을 것이다. 레스토랑이 잘되면 쓰고, 혹은 망해도 쓸 수 있다. 하하.”<br/><br/><br/><br/>마지막으로 천 작가에게 결혼 계획을 물었다. 천 작가는 “<span class='quot1'>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이 든 이야기를 한다</span>”고 핀잔을 줬다.<br/><br/><br/><br/>“부모님이 이제는 오히려 겁이 난다고 한다. 괜히 ‘애먼 사람’ 데려올까 봐…. 그러나 내가 밥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게 그립더라. 누군가 내게 요리를 해주는 남자라면 어떨까. 하지만 지금은 손님맞이에도 여유가 없다. 소식 듣고 찾아왔다는 손님, 내 소설을 좋아하던 팬들이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나도 행복을 느낀다. 당분간은 열심히 밥을 차려 드리겠다.” <br/><br/><br/><br/>인터뷰 = 김인구 차장 (문화부) clark@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09.txt

제목: <명작의 공간>영화 ‘겨울 나그네’는… 故 최인호 소설 영화화 1986년 개봉 흥행대박  
날짜: 20170224  
기자: 김구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4160005001  
ID: 01100501.20170224160005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고 곽지균 감독의 데뷔작인 ‘겨울 나그네’(사진)는 네 남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br/><br/><br/><br/>대학생 민우(강석우)와 다혜(이미숙)는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지만 민우가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안 후 다혜를 떠나 기지촌으로 흘러들고, 다혜는 하염없이 민우를 기다린다. 민우의 선배 현태(안성기)는 다혜에게 다가가고, 기지촌 클럽에서 일하는 제니(이혜영)는 민우의 아이를 낳는다.<br/><br/><br/><br/>강석우, 이미숙, 안성기, 이혜영 등 당시 큰 인기를 끌던 청춘스타들이 출연한 이 영화는 1986년 개봉해 22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그해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했다. <br/><br/><br/><br/>이미숙은 이 영화를 통해 1980년대 충무로 대표 여배우로 떠올랐으며 안성기도 톱스타로 자리매김했다. <br/><br/><br/><br/>곽 감독은 이 영화 이후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젊은 날의 초상’ ‘장미의 나날’ 등 감성적인 멜로 영화를 만들며 큰 인기를 누렸지만 2006년에 연출한 ‘사랑하니까 괜찮아’가 흥행에 실패한 후 더 이상 작품을 내놓지 않다가 2010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을 쓴 최인호 작가도 2013년 암으로 별세했다.<br/><br/><br/><br/>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0.txt

제목: 트럼프 ‘反EU’ 발언, 유럽 反EU정당에 역풍  
날짜: 20170224  
기자: 김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4142005011  
ID: 01100501.2017022414200501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유럽에 단결 효과 일으켜<br/><br/>‘親EU’마크롱·슐츠 약진<br/><br/><br/><b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유럽연합(EU) 발언이 오히려 EU 내 단합 목소리를 자극하면서 반EU를 내세운 극우 정당들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시대 본격화하고 있는 포퓰리즘 바람에 기대려던 유럽 극우 정당들은 예기치 못한 역풍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br/><br/><br/><br/>23일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반EU 발언이 유럽 정치인들을 단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역설적으로 파리와 베를린, 브뤼셀 등 EU 주류 정치권에 EU 단합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br/><br/><br/><br/>특히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올해 선거를 앞둔 유럽 각국에서 친(親)EU와 반트럼프를 내세운 지도자들이 약진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4~5월 치러지는 프랑스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가장 비판적인 에마뉘엘 마크롱 전 경제장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사회당 출신 무소속 후보인 마크롱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이 히틀러를 막지 못했던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날을 세워왔다. 프랑스 여론조사 연구소(IFOP) 조사에서 마크롱 전 장관은 1차 투표에서 22.5%의 지지율로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를 내세운 마린 르펜 국민전선(26.5%)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결선 투표에서는 61.0%의 지지로 대통령직을 거머쥘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9월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가장 비판적인 마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이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앞서 나가고 있다. <br/><br/><br/><br/>지난 20일 빌트 암 존탁이 여론조사 기관 엠니드에 의뢰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사민당은 33%의 지지율로 기민-기사당 연합(32%)에 10년 만에 앞섰다. <br/><br/><br/><br/> 김석 기자 suk@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1.txt

제목: <100세 시대 ‘식·의약 안전’>환자 유전·습관에 맞춘 新藥개발…‘중증질환 정복’ 나선다  
날짜: 20170222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2143005012  
ID: 01100501.2017022214300501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9) 정부, 정밀의학 ‘획기적 의약품’ 지원<br/><br/><br/><br/>똑같은 약 처방해도 효과 달라<br/><br/>환자별 치료법 최대한 세분화 <br/><br/><br/><br/>국민‘건보 빅데이터’바탕으로<br/><br/>진료정보 등 실시간 수집·축적 <br/><br/><br/><br/>정부, 스타트업·벤처 육성나서<br/><br/>국내외 기술·국제교류 등 지원＃“우리는 달에 갈 것입니다.”<br/><br/><br/><br/>1962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을 잘 보기 위해 망원경 성능을 높이는 대신 달에 갈 수 있는 탐사선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혔다.<br/><br/><br/><br/>1969년 아폴로가 달착륙에 성공했다. 이른바 ‘문샷 싱킹(moonshot thinking)’으로 ‘10% 성장’보다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라는 창의적 생각의 대표적 사례로 지금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br/><br/><br/><br/>＃“암을 완전히 정복하겠습니다.”<br/><br/><br/><br/>2016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캔서 문샷(cancer moonshot)’을 발표했다. 인류가 달에 착륙한 문샷과 같이 암(cancer)에 대한 혁신적인 도전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대규모 암 환자 유전체를 분석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항암치료와 신약 백신을 개발해 암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각종 유전체 정보, 생활습관 정보를 분석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정밀 의학’(Precision Medicine)에 기반을 둔 계획이다.우리나라도 혁신적인 도전에 착수했다. 정밀 의학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존의 의약품보다 효능과 안전성이 월등한 ‘획기적 의약품’ 개발에 나선 것이다. 획기적 의약품은 치명적인 중증질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중증질환을 정복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다.<br/><br/><br/><br/>◇의학 발전의 토대가 된 정밀 의학 =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유전체가 분석되고, 개인의 생활습관도 그 패턴과 영향이 분석되고 있다. 이런 모든 정보가 빅데이터로 종합되고 개인별로 다른 환자의 특징이 파악되는 시대다. 이는 특정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의 치료성적과도 연결된다.<br/><br/><br/><br/>그동안에는 같은 치료법이나 치료제를 써도 환자마다 제각각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환자별로 다른 특징과 증상을 분석하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최대한 세분화할 수 있다. 그동안 똑같은 약을 처방해도 어떤 환자에게는 잘 듣고, 어떤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각기 다른 맞춤형 처방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br/><br/><br/><br/>이것이 정밀 의학의 기본 개념이다. 결국, 각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자연스레 치료확률이 높아지고, 약효가 듣지 않는 치료제 사용을 줄이면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br/><br/><br/><br/>이런 정밀 의학은 획기적인 신약개발 가능성도 높인다. 기존 임상시험은 대상 환자군을 전체 환자에 한해 시험을 했지만, 현재는 유전자형별로 구분해 특정 유전자가 있는 환자군과 없는 환자군 등으로 세분화해 임상시험이 가능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가입자인 건강보험공단의 환자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유리한 조건이다. 정부는 일반인 최소 10만 명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축적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br/><br/><br/><br/>◇한국판 ‘캔서 문샷’ 프로젝트 = 정부는 이런 정밀의료를 바탕으로 치명적 중증질환 신약 개발을 촉진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br/><br/><br/><br/>공공재로서 대규모 특정 질환자 유전체 분석 및 정보를 공유해 전통적인 제약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육성해 신약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br/><br/><br/><br/>우선 정부는 ‘획기적 의약품’을 지정해 각종 지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초기 임상시험 단계에서 치료 효과가 기존의 의약품과 비교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이 대상이다. 주로 유전적 질병, 암, 자가면역질환 등 치명적 중증 질환이다. 이렇게 지정된 획기적 의약품은 연구시행 및 연구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뿐 아니라, 국내외 관련 정보와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 교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공동 임상시험과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등 필요한 모든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br/><br/><br/><br/>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된 획기적 의약품의 허가 절차도 신속화한다.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발 과정별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받아 미리 심사하고, 제조판매품목허가 등이 신청된 경우 다른 의약품 심사보다 우선 심사해 신속하게 공급하게 된다. 제약사가 연구 개발을 마치고 허가 자료를 모두 준비한 뒤에 허가를 신청하는 기존 방식보다 허가 기간이 짧아지고, 개발 과정에서 수정 사항 등을 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r/><br/><br/><br/>물론 안전성 확보는 필수다. 유효성을 보강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했으며, 의약품별로 맞춤형 훈련을 받고 경험 많은 의료인만 처방하도록 한정했다. 사후 관리 차원에서는 획기적 의약품이 환자의 치료 시기 및 치료 효과 등에 미친 영향 및 종합적인 치료 가치도 평가한다. 아울러 획기적 의약품이 개발된 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다.<br/><br/><br/><br/>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중대한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개발 및 허가를 촉진함으로써 적시에 의약품을 공급해 국민에게 폭넓은 치료기회가 보장될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언론사: 문화일보-2-212.txt

제목: <안진용 기자의 엔터 톡>집짓는 예능, 누구를 위한 善意일까요?  
날짜: 20170222  
기자: 안진용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2142005005  
ID: 01100501.20170222142005005  
카테고리: 경제>서비스\_쇼핑  
본문: 대한민국에서 ‘내 집’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2030세대가 버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평균 수준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데 12년이 걸린다고 하죠. 사실상 한 푼도 쓰지 않는건 불가능하니 절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4년은 족히 걸립니다. <br/><br/><br/><br/>그런 의미에서 예능 제작진이 ‘육방’(육아방송), ‘먹방’(먹는 방송)에 이어 집을 지어주거나 인테리어를 바꿔주는 ‘집방’을 새로운 화두로 잡은 것은 꽤 영리한 판단이었습니다. <br/><br/><br/><br/>하지만 최근 방송을 시작한 종편채널 JTBC ‘내 집이 나타났다’를 보고 있노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부러움이나 질투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이 MBC ‘일밤-러브하우스’와 포맷과 일부 출연진까지 같아 진부해서도 아니죠. 그보다는 현실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입니다.<br/><br/><br/><br/>8부작으로 사전 제작된 ‘내 집이 나타났다’를 만들기 위해 제작진은 시청자 사연, 관공서 등의 추천을 받아 1500가구 중 6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시청자들이 TV를 통해 접한 집들은 대부분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가 힘든 수준이었죠. 스태프 700여 명을 비롯해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8개월에 걸쳐 만든 집은 대단했습니다.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집이 탄생했죠. 하지만 집을 수리하기 힘들 정도로 살던 가족들의 생활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버거운 집’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1회에 등장한 가정의 가장은 일용직 근로자였고, 3회에 등장한 가정은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 생계가 어려웠죠. <br/><br/><br/><br/>물론 그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과 희망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내 집이 나타났다’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당 제작비 5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집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는 날 선 비판도 있죠.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사에 “저 비용이면 수십 채의 집들을 살기 좋은 환경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msjh\*\*\*\*), “감동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 이 방송은 사연 신청자들이 주가 되지 않고 집이 주가 되었다”(idmm\*\*\*\*)와 같은 댓글이 달리는 이유입니다.<br/><br/><br/><br/>게다가 포털사이트에서 ‘내 집이 나타났다’를 검색하면 “○○미아, 가구·소품 후원” “○○ L&C, ‘내 집이 나타났다’ 지원하며 소비자 접점 늘려” 등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능을 제작하며 PPL(제품간접광고)을 받는 것은 당연한 상업논리라지만, 주거 환경이 나빠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사연 신청자들을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이었다면 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br/><br/><br/><br/>realyong@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3.txt

제목: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무청시래기, 체내 대사과정 불순물 무력화… 肝 해독능력도 탁월  
날짜: 201702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2113506001  
ID: 01100501.20170222113506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간은 인체 내 대사가 활발히 이뤄지는 기관으로서 몸속 독소가 생기면 가장 많이 타깃이 되는 취약한 기관이기도 하다. 환경독소나 대사산물로 인한 독소, 활성산소들에 의해 시달리는 간은 그 특유의 해독작용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살신성인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br/><br/><br/><br/>아데노실메티오닌 형태로 무청시래기 속에 들어있는 황(sulfur)은 체내 대사 과정의 불순물인 호모시스테인을 무력화하고 DNA와 RNA의 정상적인 발현을 유지케 하면서 동시에 글루타티온 합성을 도와 탁월한 간 해독 능력을 보인다. <br/><br/><br/><br/>또 일부 공업용품에 들어있는 테트라클로라이드(CCL4) 같은 간독성 화학물질 또한 지방간이나 간경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무 속의 간해독 성분이 이러한 간독성 화학물질에 대해 강력한 해독작용을 보여준다. 특히 술을 즐겨 먹는 사람들의 체내로 CCL4가 유입될 경우 간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청 속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isothiocyanate)와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 역시 간 해독에 좋다. <br/><br/><br/><br/>무청시래기는 오래전부터 이미 항균작용과 항암작용, 항산화기능이 강력한 것으로 유명하다. 예전엔 쓰레기만도 못한 시래기라 해서 갖다 버린 무청과 무청을 말린 시래기 속에 강력한 항산화와 간 해독 성분이 들어 있다는 것은 실로 놀랍다. 무 자체보다 무청은 항산화 효과와 독소제거 작용이 훨씬 강력하다. <br/><br/><br/><br/>그린티와 블랙티에 풍부한 폴리페놀산도 무청시래기에 많이 들어 있다. 폴리페놀 속엔 카테킨(catechin), 시린직산(syringic acid), 바닐릭산(vanillic acid), 미리세틴(myricetin), 쿼시틴(quercetin)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주로 지방산 대사에서 나오는 활성산소와 중금속대사를 억제해 주는 효과를 보여준다.<br/><br/><br/><br/>무청시래기에는 비타민C가 하루 영양 권장량의 25%가 들어 있어서 혈관과 조직세포 재생을 돕고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준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간 해독에 일조를 한다. 활성산소가 암이나 심장질환, 중풍 계열의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무청시래기의 효능이 참으로 기특하다.<br/><br/><br/><br/>엽산과 리보플라빈, 칼륨 그리고 구리와 비타민 B6, 마그네슘, 망간, 칼슘 등 또한 무청 속에 존재하면서 원활한 신진대사를 돕는다. 그 중에서 식이섬유는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체중감량을 유도하면서 지방흡수를 억제하고 장 속 유산균을 활성화한다. 장 속의 독소가 잘 배출돼야 간 해독 대사도 잘 된다. 무청시래기는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변이 대장을 빠르게 통과하도록 해 배변량을 늘려 변비를 예방해 준다.<br/><br/><br/><br/>무청시래기는 또한 혈압조절 작용이 있고 천식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항균, 항진균, 해독작용과 함께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한 습기를 유지케 하는 역할을 한다. <br/><br/><br/><br/>이담작용이 있어서 지방대사를 촉진하고 소화를 도우며,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 적혈구 파괴를 예방하기도 한다. 무청시래기에는 관절과 연골, 뼈, 피부 등을 보호해 주는 당단백질인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도 풍부해서 퇴행성관절염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br/><br/><br/><br/> 빙빙한의원 원장(한의기능영양학회장)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4.txt

제목: 신라젠 펙사벡-여보이 병용치료 임상시험 스타트  
날짜: 20170221  
기자: 유현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1175005002  
ID: 01100501.20170221175005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신라젠(대표 문은상)이 자체 개발한 항암바이러스 ‘펙사벡(Pexa-Vec)’과 면역관문억제제 ‘여보이(Yervoy)’가 유럽에서 병용치료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br/><br/><br/><br/>21일 신라젠은 이번 임상시험의 첫 환자가 프랑스 리옹 소재 레옹 버나드 암 센터에 등록됐으며, 향후 총 60명의 환자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br/><br/><br/><br/>펙사벡과 병용투여하게 되는 여보이는 흑색종을 대상으로 2011년 시판 승인된 항암제다. 글로벌 매출이 약 3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 임상 1상은 각종 말기 고형암(전이암 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라젠 측은 “<span class='quot0'>올해 내 중간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br/><br/>이번 임상시험에 대해 프랑스 구스타브 루시 병원의 마라벨 교수는 “<span class='quot1'>항암 바이러스와 면역관문 억제제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강한 믿음이 있으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요법에서 보인 한계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br/><br/>항암바이러스는 단독 치료로도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면역관문억제제(ICI)와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항암바이러스와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요법의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br/><br/><br/><br/>신라젠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이번 임상은 당사 유럽파트너사인 트랜스진(TRANSGENE)에서 펙사벡과 병용투여로 여보이가 갖고 있는 독성을 낮춰 소량 투여만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임상시험으로, 핵심기술인 펙사벡과 면역관문억제제 병용치료의 시발점</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br/><br/>유현진 기자 cworange@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5.txt

제목: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맞춤 암센터  
날짜: 2017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1142005005  
ID: 01100501.2017022114200500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원장 김준식)이 맞춤형 암 치유병원을 오픈했다. 맞춤형 암 치유병원은 환자의 개인별 맞춤 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높여 생존율을 높이고, 암 치료 이후 환자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병원이다. 정철운 맞춤형 암 치유병원장은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환자 맞춤 표적항암제를 선택함으로써 항암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전체 분석센터, 혈액암센터, 고형암센터 등 특화 센터를 같은 공간에 배치한 환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성했다.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6.txt

제목: 獨 좌파연정 고개… 메르켈 4연임 위기  
날짜: 20170220  
기자: 김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0122006009  
ID: 01100501.20170220122006009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사민당, 지지율 33%로 1위<br/><br/>좌파당 8%·녹색당 7% 선전<br/><br/>적적녹 연합땐 의회 다수 가능<br/><br/>베를린州정부서 연정 경험도<br/><br/><br/><br/>극우 정당 9%… 1년새 최저<br/><br/><br/><br/>앙겔라 메르켈(오른쪽 사진) 독일 총리의 4연임이 유력한 듯 보였던 독일 9월 총선 지형이 마르틴 슐츠(왼쪽) 전 유럽의회 의장을 앞세운 사회민주당의 공세에 급변하고 있다. 독일 내부에서는 올 9월에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정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br/><br/><br/><br/>19일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이날 독일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여론조사 기관 엠니드에 의뢰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사민당이 33%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메르켈 총리를 공동 총리 후보로 내세운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의 지지율은 32%로 사민당에 1%포인트 뒤졌다. 빌트 암 존탁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민당 지지율이 기민-기사당 연합을 앞지른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지난 6일 독일 일간지 빌트가 여론조사 기관 인사에게 의뢰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사민당이 31%의 지지를 얻어 기민-기사당 연합(30%)을 역시 10년 만에 앞지른 바 있다. <br/><br/><br/><br/>사민당 지지율은 기민-기사당 연합을 1%포인트 앞서는 수준이지만 슐츠 전 의장은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들면서 메르켈 총리의 인기를 현저히 앞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ZDF가 지난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슐츠 전 의장은 메르켈 총리를 11%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br/><br/><br/><br/>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사민당이 연달아 1위를 차지한 결과가 나오면서 이번 총선 이후 사민당을 중심으로 좌파당과 녹색당이 소수 파트너로 참여하는 ‘적적녹’ 좌파 연정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도이치벨레는 전했다. 빌트 암 존탁 조사에서 좌파당의 지지율은 8%, 녹색당의 지지율은 7%로 조사됐다. 도이치벨레는 이러한 지지율로 볼 때 적적녹 좌파 연정이 의회 다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독일 정부는 다수당인 기민-기사당 연합(310석)과 사민당(193석)의 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br/><br/><br/><br/>사민당과 좌파당, 녹색당 등 3개 당이 함께 하는 적적녹 좌파 연정은 지난해 11월 독일 수도인 베를린 주에서 실제로 구성된 바 있다. 사민당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기존 베를린 주 정부 연정 파트너였던 기민당이 패배하자 좌파당, 녹색당과 새로운 연정을 구성했다. 베를린 주 정부의 좌파 연정 구성은 사민당이 올해 9월 총선을 대비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었다. 사민당이 슐츠 전 의장을 당 대표와 총리 후보로 내세운 뒤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베를린 주 정부에서 선을 보였던 적적녹 좌파 연정이 중앙 정부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지지율이 9%를 기록하면서 최근 1년 사이 지지도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br/><br/><br/><br/> 김석 기자 suk@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7.txt

제목: <세상 만사-나라 밖>“癌환자 하루걸러 30분 걸으면 삶의 質개선”  
날짜: 20170220  
기자: 윤명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20114006005  
ID: 01100501.2017022011400600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환자가 하루 걸러 30분씩 걸으면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서리대 보건대학원 암 환자 지원 연구실장 에마 림 박사 연구팀이 진행성 암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엔 하루 걸러 최소 30분씩 걷고 1주일에 한 번씩 지원자 그룹 걷기에 참가하게 하는 한편 다른 그룹은 평소 신체활동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면서 6주, 12주, 24주 후 삶의 질을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연합뉴스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8.txt

제목: <파워인터뷰>“교회가 진보·보수로 성향 나누는 건 우스운 얘기”  
날짜: 20170217  
기자: 엄주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17114505001  
ID: 01100501.20170217114505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 한국정교회 대교구장조성암 암브로시오스<br/><br/><br/><br/>교회는 정치적·세속적 아닌<br/><br/>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임<br/><br/>계속 갈라지는 모습 보이고<br/><br/>외형적 대형화만 추구한다면<br/><br/>신자 없는 텅 빈 교회 될 수도<br/><br/><br/><br/>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 해<br/><br/>타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보다<br/><br/>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반성해야<br/><br/>그리스도교 위기 벗을 수 있어<br/><br/><br/><br/>인터뷰 = 엄주엽 선임기자(문화부)<br/><br/><br/><br/>1970∼1980년대 초만 해도 서울 마포에서 서대문 쪽으로 향하다 아현 고개에 못미처 오른편 구릉에 이국적인 둥근 돔(dome)의 성당이 우뚝 솟아 눈길을 끌었다. 지금은 빌딩과 아파트 숲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이곳이 1968년에 지어진 비잔틴 양식의 한국정교회 대교구 성니콜라스 성당이다. 당시에 ‘웅장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는데, 워낙 커진 한국의 교회와 성당 건물에 익숙해져 이제 이곳은 ‘아담한 예배당’이란 표현이 어울린다. 세계적으로 정교회(正敎會·Orthodoxy Churches)는 가톨릭, 프로테스탄트(개신교)와 함께 3대 그리스도교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 20세기 시작과 함께 한반도에 들어왔지만 역사적 굴곡 속에서 교세를 키우진 못했다. 한국정교회 대교구장 암브로시오스 아리스토텔리스 조그라포스(한국명 조성암·趙聖巖) 대주교는 정교회의 중심 뿌리인 그리스 출신으로, 한국에 온 지는 햇수로 19년째다. 지난해 11월 개신교 중심의 국내 진보적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회장을 맡았다. 정교회 대주교가 세계교회협의회(WCC) 산하 NCC(나라별 단위협의회) 수장을 맡기는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라 화제가 됐다.<br/><br/><br/><br/>지난 2일 찾은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집무실은 응접 소파도 놓지 못할 정도로 작았다. 낡은 책상에는 컴퓨터가 놓여있고, 벽에 걸린 정교회의 성화(聖畵)인 이콘(icon)이 없다면 대주교의 방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검박했다. 탁자도 없이 의자에 마주 앉아 인터뷰를 했다. 깊고 맑은 눈, 긴 회색 수염 사이의 부드러운 목소리, 진지하며 따뜻한 분위기의 인물이었다. NCCK 회장이라는 선입견 탓에, 다소 파격적일 것이란 기대는 맞지 않았다. 역시 ‘오소독스’ 교회의 대주교였다. 가벼운 질문부터 했다.<br/><br/><br/><br/>―대주교께서 수염을 기른 것은 정교회의 전통입니까?<br/><br/><br/><br/>“정교회 성직자들이 대개 수염을 기르니 그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고대부터 그리스 등의 지중해 연안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으면 이상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수염을 다 길렀습니다. 수염은 정교회의 교리나 전통이 아니고, 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 지역의 외형적인 전통일 뿐입니다.”<br/><br/><br/><br/>하긴, 성화 속의 예수도 항상 수염을 기른 모습이다. 초대 교회 전통을 잇는 정교회 성격과 무관하진 않을 듯하다. <br/><br/><br/><br/>―성 니콜라스 성당의 이콘이 아름답습니다. 가톨릭 성당과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정교회에서 이콘이 종교적 의미가 있겠지요?<br/><br/><br/><br/>“이콘은 로마 박해시대의 카타콤바(catacomb·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피난처로 사용된 지하묘지)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지만,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주된 목적은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글로써 가르침을 전하지만, 성화는 그 구성과 회화로써 가르침을 전합니다. 성화를 숭배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선조의 기일이나 장례식 예배에서 사진을 보고 절을 하거나 입을 맞추듯, 성화를 보면서 존경을 표하는 것, 공경하는 것입니다. 4세기 신학자이자 성인인 성 대 바실리오스는 ‘공경은 화폭이 아니라 그 실체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지요.”<br/><br/><br/><br/>그리스도교는 7∼8세기 성화에 대한 ‘우상’ 논쟁이 치열했다. 787년 제7차 세계공의회(公議會·그리스도교 지도자와 신학자들이 모여 교회의 신조와 원칙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는 회의)가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성인들을 ‘공경’하기 위해 성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리를 했다. 대주교는 대학원에서 예술사를 전공했을 만큼 성화에 대한 조예가 깊다. ‘성화와 불화의 유사성’이란 논문을 내기도 했다.<br/><br/><br/><br/>“이집트 시나이에 있는 성카테리나 수도원에서 2년간 도서관장을 지냈습니다. 그곳은 바티칸 다음으로 성서 필사본이 많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성화갤러리가 있습니다. 연구를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저명한 학자들을 만나면서 예술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후 한국에 와서 성화와 불교의 탱화와 닮은 점을 보게 됐지요. 비잔틴(동로마제국) 예술이 문화적 차이가 큰 불교 예술과 닮은 점에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 인도까지 진출하며 비잔틴 예술이 불상 등에 영향을 미쳤고, 나중에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문화와 교류했습니다. 글이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예술과 그림으로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화와 불화의 유사성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br/><br/><br/><br/>―정교회가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오소독스’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원형’ ‘정통’의 의미가 종교적으로 짙은 것 같습니다.<br/><br/><br/><br/>“정교회, 곧 ‘오소독스’라는 용어는 초대 교회의 1000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의 교회’였으나 1054년 커다란 분열을 맞게 됩니다. 초대 5대 관구에서 나중에 가톨릭으로 지칭되는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안티오키아·알렉산드리아·콘스탄티노플의 4개 교회가 분리되는데, 이 4개 교회에 ‘오소독스’를 붙입니다. 올바른 교회, 교리를 지켜 내려온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오소독스’를 ‘바를 정자(正)’로 번역해서 ‘정교회(正敎會)’로 했습니다. 역사나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정교회는 분열 이전 7차례 세계공의회를 통한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홀로 있게 되면서 여러 변화를 겪습니다. 사례 하나만 들면, 정교회에는 미혼과 기혼 성직자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초대교회 때 모습입니다. 사도들 중 결혼 한 분도, 안 한 분도 있었지요. 분열된 후에 가톨릭은 미혼 사제만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홀로 남다 보니 실수와 잘못을 하면서 16세기에 다시 한 번 커다란 분열을 맞습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다시 분열돼 나온 거지요. 가톨릭은 가장 최근에만 봐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등 많은 변화를 하며 현재의 모습이 됐습니다.”<br/><br/><br/><br/>―가톨릭이 변화를 겪기도 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구원의 보편성을 이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인정하는 등 현대에 맞게 변화해온 건 긍정적으로 봅니다만.<br/><br/><br/><br/>“예수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성서의 말씀이나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가톨릭은 교황부터 하이어라키, 곧 위계(位階)가 분명한데, 정교회는 다른 것 같습니다.<br/><br/><br/><br/>“가톨릭과 정교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도 시대 때는 공의회(公議會)라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성서 등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 논의했고 모든 교회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서방 교회 가톨릭은 교황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교황의 ‘무오류설’이라든지 다른 교리를 만들어 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동방의 정교회는 나만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나만이 결정하고 승인하는 존재(교황)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였던 초대교회가 나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사도들은 모두 평등한, 수평적 관계였습니다. 초대 교회의 중심이 된 다섯 교회는 ‘동등한 가운데’ 로마 교회의 주교가 의장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정교회는 가톨릭과 일치한다면 동등한 가운데 첫째 자리로 로마 교회를 인정할 것입니다.”<br/><br/><br/><br/>―가톨릭과 개신교에 비해 정교회는 ‘예수의 부활’을 중시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br/><br/><br/><br/>“정교회를 사람들이 ‘부활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가장 큰 축일(祝日)로 중요시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을 가장 중시해, 부활절 전에 사순절(四旬節)을 어떻게 지내고, 어떤 예배를 지냈는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언급했다시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와 신앙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큰 축일이지만 구원의 시작, 곧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에서 여러 현자와 다를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었다 부활한 유일한 분으로서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한번은 죽지만 영적·육적으로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국은 그리스도인이 많지만, 성탄절은 누구나 기리면서도 부활절은 조용하게 지내는 것을 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달하고 인식할 수 있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br/><br/><br/><br/>흔히 한국정교회에 대해 ‘그리스정교회냐, 러시아정교회냐’는 질문을 한다. 세계적으로 3억 명 정도의 정교회 신도가 있는데, 그리스와 러시아정교회가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다. 정교회는 대관구나 대교구가 없어도 그 지역의 명칭을 붙여 한국정교회, 미국정교회 등으로 불러 자치적 성격을 강조한다.<br/><br/><br/><br/>―한국정교회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격동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정교회의 역사를 한번 짚어주십시오.<br/><br/><br/><br/>“1900년 2월 17일 러시아 모스크바 대주교청에서 파견한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 성찬예배가 이뤄지며 한국에서 정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1904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면서 일본이 러시아인과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자체에서 정교회가 박해를 받아 한국정교회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끊겼고, 서울 정동의 성당과 토지 등 정교회 재산도 일본정교회 소유가 돼 교회 유지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한국이 일본과 러시아를 모두 적대시하면서 한국정교회는 ‘고아’가 돼버립니다. 한국전쟁으로 단 한 분의 한국인 김의한(알렉세이) 신부가 납북됐죠. 유엔군으로 참전한 그리스군 종군신부들의 노력으로 회생의 기회를 맞았고, 195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총대교구청에 속하며 2004년 대교구가 됩니다. 현재는 한국에 2개의 수도원과 7개의 성당 그리고 소성당 몇 개가 더 있습니다.”<br/><br/><br/><br/>원래 정동에 있던 성당과 토지 등 정교회 재산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정교회의 도움을 받아 일부 되찾게 된다. 이런 역사적 질곡에서 자유로웠다면, 한국정교회는 지금 훨씬 큰 모습이었을 것이다. <br/><br/><br/><br/>―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한 그리스의 유서 깊은 에기나섬이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br/><br/><br/><br/>“에기나섬은 그리스의 부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남쪽의 지중해 항구 피레오스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에기나섬에서 바울로부터 그리스도교가 전파됐고 신약성서도 그리스어로 처음 쓰였으며 신앙적으로도 깊게 전해진 데 대해 자부심이 큽니다. 고등학교시절까지 에기나섬에서 보냈고, 신학은 아테네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더 공부한 뒤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br/><br/><br/><br/>―아테네 신학대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미국 유학 후 교회의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는데, 본격적인 목회지로 한국을 선택한 건 좀 의외로 보입니다.<br/><br/><br/><br/>“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린스턴대에서 공부할 때 당시 한국의 소티리오스 대주교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무 인연도 없던 한국 정교회에 도움이 돼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도 가본 적이 없어 당황스러웠지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교수제안이 있었고, 그리스와 미국, 캐나다에서도 목회 요청이 있었지만 1998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몇 차례 한국을 다녀가면서, 여러 여건이 부족한 여기에서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했던 거지요.”<br/><br/><br/><br/>‘출세가도’와 명예, 안락을 버리고 한국정교회의 반석이 되고자 한 것이다. 그의 ‘조성암’이란 한국명에서도 그런 의지가 읽힌다.<br/><br/><br/><br/>“한국인으로 살려면 한국 이름이 필요하겠더군요. 조그라포스의 ‘조(趙)’, 암브로시오스의 ‘암(巖)’에서 따왔고, 가운데 ‘성(聖)’자를 넣었지요. 사도 베드로처럼 ‘거룩한 반석(聖巖)’이 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그리스는 정교회가 국교지만, 한국은 ‘종교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처음에 낯설지 않았습니까.<br/><br/><br/><br/>“한국으로 오기 전에 그리스에서만 있다 온 게 아니고, 미국과 시나이 등에서 머문 경험이 있어서 크게 이상하진 않았어요. 미국도 한국처럼 다양한 종교가 있고, 시나이도 이슬람권이어서 이웃종교에 대한 경험을 했던 거지요.”<br/><br/><br/><br/>그는 한국외국어대에서 오랫동안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등 젊은이들과 교유를 했다.<br/><br/><br/><br/>―한국에 온 지 19년이 되셨습니다. 한국인, 특히 한국의 젊은이는 어떻습니까.<br/><br/><br/><br/>“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외모 모두를 사랑합니다. 한국인들은 내면에 느낌과 감각이 풍부하고 예의 바르고 경건합니다. 외모도 곧고 검은 머리카락, 쌍꺼풀이 없어 더 매력적인 눈 등이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노래는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다만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가진 고유의 모습, 문화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학기가 바뀔 때마다,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얼굴과 머리색이 바뀌어 못 알아 봅니다. 다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온 게 다 좋은 게 아닌 건 이미 누구나 알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아름다운 문화와 마음, 외모에 대해 감사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이 안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지요.”<br/><br/><br/><br/>최근 여러 관점에서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내외 종교 상황으로 대화를 옮겼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정교회가 역사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운동을 길게 강조했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성소수자 논란에 대해선 보수적인 느낌을 받았다.<br/><br/><br/><br/>―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이 NCCK의 가장 큰 행사가 될 것입니다. NCCK 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정교회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은 좀 비켜있습니다. 정교회에서 보는 종교개혁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br/><br/><br/><br/>“종교개혁 500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분열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냐는 문제의식입니다. 500주년을 행사로서만 보내면 안 되고, 자기반성을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자도 많고 재정도 탄탄하니 교회의 일치 문제를 생각할 게 없다’는 교회가 많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분열된 교회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30∼2040년이 되면 한국 그리스도교 교인 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교회의 세속화와 목회자들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의 갈라진 모습이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br/><br/><br/><br/>―지난 연말 통계청이 조사한 바로는 한국에서 개신교인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는 교회의 대형화만 추구하고 목회자의 세습, 각종 비윤리적 행태들로 비판받고 있기도 합니다만.<br/><br/><br/><br/>“이런 상황을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크게만 짓다 보면 대형교회는 나중에 신자가 없는 텅 빈 교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직자부터 신자들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 교회가 정치적인, 세속적인, 세상의 집합체가 아니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성적으로, 신앙적으로 구원을 위한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NCCK의 신년메시지에서 언급했지만,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기보다 자신이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그리스도교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처음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회개하여라’였습니다.”<br/><br/><br/><br/>―한국 교회는 식민지 - 전쟁 - 분단 등을 겪으면서 진보 - 보수로 나뉘어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br/><br/><br/><br/>“교회가 진보다, 보수다 하는 건 우스운 얘기입니다. 교회는 성서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교회 단체들이 NCCK, 한기총, 한교총 등으로 많이 나뉘었는데,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진보다, 보수다, 뭐다, 뭐다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보수다, 진보다 자기 성향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br/><br/><br/><br/>―보수 개신교 쪽에서 대선주자들에 대해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주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br/><br/><br/><br/>“개인 의견은 될 수 없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적으로 초대교회부터 개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끊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성소수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먼저 말초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 이외에도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들만의 ‘게토’를 만들지 말라,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반대라고 말할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br/><br/><br/><br/>―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슬람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으로 시끄럽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개신교회의 이슬람 포비아가 적지 않습니다.<br/><br/><br/><br/>“이슬람을 적대시하는 모습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적대감만 표출돼 다툼이 커질 뿐입니다. 나라마다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절차를 거치는 건 그 나라의 사정이지만,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명찰을 붙여 무조건 되고, 안 되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박해했던 과거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의 경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비잔틴이 함락되면서 터키 즉 이슬람 지배하에 역사적으로 큰 박해와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교회는 한 번도 이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br/><br/><br/><br/>―인공지능(AI) 등 과학의 발전도 종교에 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br/><br/><br/><br/>“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그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나와도 사람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사람은 몸과 뇌만 가진 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 있습니다. 로봇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기계와 과학문명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통역 도움:박인곤 요한 보제)<br/><br/><br/><br/>ejyeob@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19.txt

제목: 쉰 살… 나이 듦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날짜: 20170217  
기자: 김인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17112005004  
ID: 01100501.20170217112005004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벌써 오십,마지막 수업 준비 / 문예춘추 엮음, 한혜정 옮김 / 북스코프<br/><br/>어쩌다 보니 50살이네요 / 히로세 유코 지음, 박점임 옮김 / 인디고<br/><br/><br/><br/>공자는 ‘논어’에서 50세를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이다. 40세의 불혹(不惑·미혹되지 않음)에 이어 하늘의 이치까지 깨닫게 되는 나이이니 50세는 아마도 ‘삶의 달인’ 경지에 오른 수준이라 할 만하다.<br/><br/><br/><br/>하지만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인 기원전 6세기였다. 평균 수명이 30∼40세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은 50세 생일을 맞이하기도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100세 시대다. 공자의 지천명은커녕 당장 1년 후를 내다보기도 힘들고 버겁다.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제2의 인생’도 준비해야 한다. 불안과 희망, 끝과 시작이 교차한다. 이번 두 권의 책도 크게는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50세를 키워드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다<br/><br/><br/><br/> ‘어쩌다 보니 50살이네요’는 일본의 수필가인 저자가 50세를 맞이하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고백한 에세이다. 저자는 50세를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조언한다. 어쩌다가 50세가 됐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br/><br/><br/><br/>저자의 경우엔 피아노 연주에 새로 도전했다. 다만 어렸을 때처럼 ‘바이엘’부터 전부 다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피아노곡 몇 곡을 칠 수 있는 수준이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볍게’ 하는 게 실패를 줄이는 요령이다.<br/><br/><br/><br/>변화하는 몸에 적응하고 이를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저자는 50세에 백내장 초기 진단을 받고 충격받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안 뒤 선글라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극복의 길을 찾았다.<br/><br/><br/><br/>이 모든 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마지막을 알면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더없이 소중해진다.<br/><br/><br/><br/>‘벌써 오십, 마지막 수업 준비’는 우리보다 고령사회가 20년 이상 빨랐던 일본의 이야기다. 보다 현실적인 조언이 들어 있다. 18명의 전문가가 50세 이후 노년의 삶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콕 짚어준다.<br/><br/><br/><br/>첫 번째는 역시 긍정적인 ‘생각’이다. 50세가 되면 우울해지는 것은 체력과 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를 먹더라도 발달하는 게 있다. 판단력 같은 직감력이다. 직감은 오랜 시간 경험으로 축적된다. 뇌과학자인 이케가야 유지(池谷裕二)는 “나이가 들어서도 호기심을 가지고 즐기는 자세야말로 기억력 감퇴를 막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몸이 너무 편해도 빨리 늙는다. 거동에 불편하다고 해서 집 안의 모든 장애물을 치우는 ‘배리어 프리’는 오히려 다리의 노화를 촉진한다. 일본 의사회 총합정책 연구기구는 요양시설의 노인들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앉았다 일어서기’ ‘한쪽 발로 선 자세 유지하기’ 등의 기능부터 저하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욕실 문에 일부러 15㎝ 정도의 턱을 만들어 움직이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br/><br/><br/><br/>그 밖에 몇 가지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다. 대사증후군을 조심해야 했던 중년기의 건강 상식을 노년기에 똑같이 적용하면 위험하다. 뱃살이 무조건 ‘중년의 적’이 아니다. 노년에는 뱃살보다는 영양결핍이 더 문제다. 구즈야 마사후미(葛谷雅文) 나고야(名古屋) 의대 상담센터장은 “<span class='quot0'>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노년은 비만보다는 오히려 마르는 것에 더 조심해야 한다</span>”고 강조한다.<br/><br/><br/><br/>암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도 많다. 그동안 암은 ‘유전자 질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해다. 유전되는 암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암은 체질이 유전된다기보다 생활습관이 이어져 온 결과라 보는 편이 맞다. 쓰보노 요시타카(坪野吉孝) 와세다(早稻田) 의대 교수는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습관은 필요하지 않다. 술과 염분을 줄이는 등 기본적인 식습관을 꾸준히 실행하는 게 가장 과학적인 암 예방책”이라고 설명한다.<br/><br/><br/><br/>결론적으로 50세 이후 노년의 삶에 대한 불안은 다소 과장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사람의 능력은 비교적 죽기 직전까지 유지된다. 지혜를 동반한 동작성 능력은 평생 발달한다.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 불안은 사라진다. 시바타 히로시(柴田博) 일본응용노년학회 이사장은 “보부아르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늙느냐는 그 시대 구성원들이 가진 선입관에 따라 결정된다. 나이 듦에 대해 순순히 받아들일 때가 드디어 찾아온 것 아닐까”라고 반문한다.<br/><br/><br/><br/> 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0.txt

제목: <그래도 희망이다>런웨이 오른 癌환자 11명…“삶을 사랑하자” 희망 워킹  
날짜: 20170215  
기자: 김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15161005007  
ID: 01100501.20170215161005007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절망 딛고 ‘뉴욕 패션위크’ 모델로 등장 ‘잔잔한 감동’<br/><br/><br/><br/>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패션쇼에 모델로 등장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과 같이 암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무대에 섰다.<br/><br/><br/><br/>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패션위크(9∼16일) 중 지난 11일 열린 디자이너 달리아 맥피의 패션쇼에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11명의 환자가 모델로 무대에 등장했다. 이날 행사는 ‘‘YES!’라는 비영리 단체가 항암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암 환자들이 무대를 걸을 때 비욘세가 리더였던 그룹,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서바이버’가 배경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br/><br/><br/><br/>이날 모델로 선 암 환자 중 한 명인 티파니 스완츠(여·34)는 5년 전인 29세에 수담관과 간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던 중 이번 행사 제의를 받고 패션쇼에 참석했다. 그는 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암이 폐까지 전이된 상태다. 이 때문에 수년째 항암 화약치료제를 투여받고 있다. 그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둘째 아이를 낳은 지 2년밖에 안됐던 때였다”며 “젊은 주부에서 하루 종일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앨라배마 헌츠빌에서 뉴욕 맨해튼까지 1500㎞를 날아왔다. <br/><br/><br/><br/>스완츠는 행사 참석 전날 호텔 거울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는 주문을 되뇌었다. 그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빠진 머리를 가리기 위해 갈색 가발을 쓰고, 달리아 맥피의 옅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패션쇼 무대를 걸었다. 그는 “아름다운 옷과 멋진 보석을 걸치고 보낸 하루는 내가 단순히 암 환자라는 생각을 벗어나게 해줬다”며 “앞으로 5년은 더 버틸 힘을 얻었고,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br/><br/><br/>뉴욕에서 1150㎞ 떨어진 인디애나 그린우드에 사는 빌 래미(60)도 대장암을 앓고 있는 몸으로 이날 패션쇼에 참석했다. 뉴욕에 난생처음 왔다는 래미는 이날 무대에 선 유일한 남성 모델이었다. 그는 ‘삶을 살자, 삶을 사랑하자’는 글귀가 쓰인 스웨터를 입고 무대를 걸었다. 그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을 가고, 손주를 낳는 것을 못 보겠구나’였다”며 “하지만 지난해 여름에 이 3가지를 모두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삶이 좀 더 주어진 만큼 모델로 무대에 서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암 환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br/><br/><br/><br/>김석 기자 suk@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1.txt

제목: < What >비건·락토·오보 등 채식 7단계, 콩고기 2400%↑…‘시장 팽창’  
날짜: 20170215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15141006013  
ID: 01100501.20170215141006013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 점점 커지는 ‘베지노믹스’<br/><br/><br/><br/>웰빙·윤리적 소비로 대중화 <br/><br/>이효리·김제동 등 참여 눈길 <br/><br/><br/><br/>채소류 생체조절 도움되지만 <br/><br/>단백질·철분·칼슘 섭취 부족 <br/><br/><br/><br/>채식주의자 꼭 하고 싶다면 <br/><br/>‘비건’보다 ‘락토 오보’ 권장<br/><br/><br/><br/>시민운동에 오래 종사한 김모(56) 씨는 9년 3개월 차 ‘비건’(Vegan·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이다. 공장식 동물 사육에 반대하는 생명 존중 운동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운동의 하나로 채식을 시작했지만, 잦은 술자리 등으로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야겠다고 느낀 것도 한몫했다. 채식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비건 채식’을 시작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격이 별나다”거나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다”고 핀잔을 듣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오랜 채식에 다혈질이던 성격이 유순하게 변하면서 요즘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다. <br/><br/><br/><br/>‘웰빙시대’를 맞아 채식 열풍이 불고 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제품이 인기를 얻으며 전 세계적으로 ‘베지노믹스’(vegenomics·채식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가수 이효리, 배우 김효진과 이하늬·한가인, 방송인 김제동 씨 등의 채식 사실이 알려지며 채식주의자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가수 이효리 씨는 채식과 함께 가죽, 모피도 입지 않는 것은 물론 유기견 보호 등 착한 소비와 환경 보호 활동에 앞장서면서 ‘웰빙’과 함께 ‘윤리적 소비’의 일환으로서의 채식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임경숙(수원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대한영양사협회장은 15일 “<span class='quot0'>최근 건강 문제가 과식 때문에 많이 나타나면서 심혈관계질환, 암 예방을 위해 동물성 지방이나 섭취량을 줄여야겠다는 인식과 맞물리면서 나오고 있는 것</span>”이라고 분석했다. 임 회장은 또 “<span class='quot1'>과거보다 채식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산업이 발달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span>”고 말했다.<br/><br/><br/><br/>실제, 현재는 콩으로 우유와 유사한 두유를 만들며 육류와 유사한 콩고기도 만들어지고 있다.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2'>과거 음식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채식만으로는 필요한 열량을 채우지 못했지만, 지금은 양적으로 식품이 충분하다 보니 열량에 대한 문제보다 생체 조절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span>”이라고 해석했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3'>비타민, 무기질 등의 생체조절 물질은 식물에 더 많이 들어 있으며, 최근 주목받는 식물 영양소인 ‘피토케미컬’도 풍부해 생체 조절에 있어 채식은 권장할 만한 부분이 있다</span>”고 말했다. 채식은 동물 사육을 위해 소모되는 각종 곡물과 물, 가축에게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을 줄일 수 있어 환경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br/><br/><br/><br/>채식주의의 단점은 없을까. 채식만으로 몸에 균형 있는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표적인 영양분이 단백질과 철분이다. 단백질은 콩에는 풍부하지만, 다른 채소에서 찾기 어렵다. 철분도 동물성 식품의 경우 23% 정도 흡수가 가능하지만, 식물성 식품에서는 3∼8% 정도로 체내 효율이 떨어진다. 또 칼슘도 우유 섭취 여부에 따라 흡수 효율이 크게 좌우된다. 임 회장은 “<span class='quot1'>채식하시는 분들은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과다한 양의 채소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처럼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의 섭취를 방해해 면역을 높이는 아연 등의 흡수가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span>”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span class='quot1'>건강한 성인의 경우 어떤 형태라도 환경에 잘 적응하게 돼 있어 큰 문제가 없지만, 어린아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채식을 권장하긴 어렵다</span>”고 말했다. 권 교수도 “<span class='quot3'>채식은 권장할 만하지만 균형되게 잘 먹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3'>단백질 섭취가 가장 어려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채식을 하더라도 우유와 달걀은 함께 먹는 ‘락토 오보 채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 락토 오보(Lacto Ovo)는 달걀, 우유, 유제품은 먹는 채식을 말한다. <br/><br/><br/><br/>이용권·김수민·박효목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2.txt

제목: <하상도 교수의 식품 오디세이>갈색 탄수화물 튀김음식 발암성 경보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14152005002  
ID: 01100501.20170214152005002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지난 설에 ‘탄수화물 바싹 튀기지 마세요!’라는 ‘갈색 음식’ 경계령이 내려졌다. 특히 설음식은 튀김, 부침 등 유난히도 기름을 많이 쓰는 음식이 주를 이룬다. 튀김이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이는 근거가 있는 말인데, 지방이 많은 데다 조리과정 중 유해물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br/><br/><br/><br/>최근 때맞춰 외국에서도 밀가루나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이 든 식품을 고온에서 오래 조리해 먹으면 암 위험이 커진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섭씨 120도 이상의 고온으로 조리할 때 생기는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 때문이다. <br/><br/><br/><br/>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인류는 불맛을 즐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불을 사용해 토스터에 오래 구운 식빵, 기름에 오래 튀긴 감자는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얻는 대신 갈색이 진해질수록 암 발생 위험은 커지게 된다.<br/><br/><br/><br/>조리 중 생성되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는 무색의 백색 결정으로 1950년대 중반부터 공업용으로 사용되던 화학물질이다. 펄프, 제지공정, 폐수처리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며 실험실에서도 겔 형성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감자, 시리얼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품을 고온에 조리했을 때 아스파라긴산과 당의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다행히도 식품의 조리온도가 섭씨 120도 이하에서는 생성되지 않고 그 이상 고온에서만 다량 생성되는 특징이 있다.<br/><br/><br/><br/>2002년 4월 스웨덴 식품규격청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 사실을 처음 보고한 후 여러 나라가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 시작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 2013년부터 음식 속에 든 아크릴아마이드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경고했으며 최근엔 영국 식품기준청(FSA)도 뒤를 이었다. <br/><br/><br/><br/>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크릴아마이드를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2A군 발암물질은 동물실험에서는 발암성 입증자료가 있으나 사람에게는 아직 발암성이 입증되지 않은 물질이다. 또한 미 산업위생사협회(ACGIH)도 아크릴아마이드를 동물에게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A3 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br/><br/><br/><br/>국제적으로 아크릴아마이드와 관련된 식품 중 유해기준은 없지만 WHO는 마시는 물에 한해 하루 권장량을 ℓ당 0.5ppb(1ppb는 10억 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WHO가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의 위해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식품 섭취를 통한 노출은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가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 산업체가 정부 권고에 따라 저감화 사업을 추진해 온 터라 그 발생량이 매우 낮아 안심해도 된다고 한다. <br/><br/><br/><br/>그렇다 하더라도 아크릴아마이드는 먹어서 우리 몸에 이익될 게 전혀 없는 소소익선(少少益善) 물질이다. 현대의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할 순 없지만, 조리법만 살짝 바꿔도 섭취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특히 고온이나 지나치게 긴 시간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굽거나 튀기거나 볶을 땐 검게 태워서는 안 되며, 황금빛이 돌 때까지만 조리하는 게 좋다. 비만학회에서도 아크릴아마이드 감소뿐 아니라 체중조절을 위해서도 볶음이나 튀김 대신 ‘찜, 구이, 삶기’ 등과 같은 음식 조리법을 권장하고 있다.<br/><br/><br/><br/>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3.txt

제목: 광운대, 독일연구소와 함께 플라즈마 연구센터 개소  
날짜: 20170208  
기자: 임대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8171005001  
ID: 01100501.201702081710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광운대(총장 천장호) 플라스마 바이오과학 연구센터(PBRC)는 독일의 ‘라이프니츠 저온플라스마(INP) 연구소’와 함께 ‘플라스마 의과학센터(APMC:Applied Plasma Medicine Center)’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플라스마 바이오과학은 우주의 기본 물질인 플라스마를 이용해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아토피나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차세대 건강 복지에 의학적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br/><br/><br/><br/>광운대는 지난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사업’(GRDC)에 라이프니츠 INP 연구소와 공동으로 APMC의 설립을 제안해 사업권자에 선정됐다. APMC는 플라스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의학·생명 공학 및 환경 신소재 분야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플라스마 바이오과학 및 의과학’이라는 새롭게 확장된 연구목표를 설계했다. 향후 각종 피부 질환 및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메커니즘 연구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br/><br/><br/><br/>최은하 센터장은 “<span class='quot0'>APMC를 통해 플라스마 의·과학 분야, 특히 플라스마 의료기기의 선도개발과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표준화 구축사업을 목표로 신산업 가치를 창출해 인류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학교 측과 라이프니츠 INP 연구소, 미래부, 서울시, 한국연구재단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지난 6일 오후 광운대 8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APMC 개소식과 센터 테이프커팅(사진)에는 천 총장과 장윤영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영 삼일문화재단 이사장, 최원호 미래부 국장, 스테판 아우어(Stephan Auer) 주한독일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br/><br/><br/><br/>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4.txt

제목: 삼성생명, 보험료 인상 없이 3대 질병 보장하는 ‘건강생활보험’ 선봬  
날짜: 20170208  
기자: 윤정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8170005004  
ID: 01100501.2017020817000500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삼성생명이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내놓았다. <br/><br/><br/><br/>삼성생명은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일반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1000만 원씩 보장하는 ‘건강생활보험’을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br/><br/><br/><br/>주로 건강보험은 10년 또는 15년 주기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이다. 이번에 출시된 건강생활보험은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 그대로 보장이 이어지는 비갱신형이다.<br/><br/><br/><br/>보장은 같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실속형도 선택할 수 있다. 실속형의 경우 보험료를 내는 동안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가입보다 보험료가 20~25%가량 저렴해지는 ‘무해지환급금형’ 보험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br/><br/><br/><br/>유방암이나 자궁암은 3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 전립선암과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은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사망에 대해선 80세까지 보장한다. 3대 주요 질병의 진단 없이 사망하는 경우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 3대 주요 질병 진단 이후 사망 시 1000만 원을 보장한다. 건강생활보험은 ‘장기요양보장특약’과 ‘3대 질병 진단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다.<br/><br/><br/><br/>가입 연령은 15세부터 59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20년, 30년 또는 80세까지로 선택할 수 있다. <br/><br/><br/><br/>삼성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건강생활보험’은 3대 주요 질병의 진단 보험금을 100세까지 보험료 인상 없는 비갱신으로 보장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속형 설계를 더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도 주요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가성비 좋은 상품</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br/><br/>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5.txt

제목: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민들레, 잎·줄기는 간세포 재생 촉진… 꽃은 장내 좋은세균 배양  
날짜: 201702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8112005009  
ID: 01100501.20170208112005009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1985년 MBC강변가요제에서 장려상을 받은 가수 박미경의 노래 ‘민들레 홀씨 되어’에는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 되어 강바람 타고 훨훨 네 곁으로 간다’는 노랫말이 실려 있다. 실제로 민들레는 홀씨처럼 온몸 전체를 구석구석 날아다니면서 상처치유와 해독 및 정화를 해주는 속성을 지녔다. <br/><br/><br/><br/>민들레의 영양성분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비타민K와 비타민A다. 비타민K는 혈관과 혈액을 안정시켜 주고 혈액응고에 관여한다. 상처로 인한 출혈이나 코피 등이 잘 나는 경우에 도움을 준다. 뼈 성장에도 핵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들레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비타민A는 항산화제로서 피부와 안구, 점막을 보호해준다. 비타민A는 피부 점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아토피에 유용하게 쓰인다.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개선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제다. <br/><br/><br/><br/>그리고 민들레에는 감기 등 감염성 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토마토보다는 약 26배, 사과보다는 4배 이상 들어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오한이 나면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진액을 따뜻하게 데워 먹기도 했다. <br/><br/><br/><br/>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민들레로부터 가장 주목할 만한 효능은 해독이다. 민들레에 함유된 실리마린은 간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며, 간세포 재생을 촉진한다. 실리마린은 위염에도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실리마린은 잎과 줄기에 특히 많다. 또 콜린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소화와 지방분해를 촉진한다. 리놀산도 풍부해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도와 대사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중년에게도 유익한 식물이다. <br/><br/><br/><br/>특히 눈여겨봐야 할 만한 성분이 민들레 속의 루테올린(luteolin)이다. 루테올린은 인체 내에서 염증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2를 생성하는 Cox-2(Cyclooxygenase-2)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프로스타글란딘2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염증 외에도 통증과 발열 증상을 유발한다. <br/><br/><br/><br/>동물성지방 등이 몸에 해로운 이유는 Cox-2 효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 루테올린은 염증성 면역 매개물질인 인터루킨6(Interleukin6)와 면역세포를 조절해 주는 TNF-α(Tumor Necrosis Factor-α, 종양 괴사 인자)도 적절히 제어해준다. 인터루킨6와 TNF-α가 적절히 제어되지 못하면 암을 비롯, 각종 면역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br/><br/><br/><br/>민들레꽃에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서 장내 좋은 세균을 배양시켜 주는 유익균의 효과도 갖고 있다. 몸의 해독 작용은 항상 콩팥의 이뇨여과 작용과 동반할 때 극대화된다. 여기에 대장 속의 유산균, 유익균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뒤따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셈이다. 이러한 완벽한 ‘해독 심포니’에 최적화된 허브가 민들레라고 볼 수 있겠다. 한방에서 오래전부터 국화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민들레를 ‘포공영(蒲公英)’이라고 부르며 주로 염증성 질환에 처방해 온 것도 이 같은 약리작용을 임상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br/><br/><br/><br/>민들레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해 피부가 민감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체질은 섭취에 조심해야 한다. 칼륨이 들어있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민들레에 풍부한 칼륨 성분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주고 나아가 심장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항생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민들레 성분들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를 요한다.<br/><br/><br/><br/>한편 ‘신토불이’ 유행 때문인지 최근 시중에 많은 서양민들레의 효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이 많지만 여러 약리실험 결과 효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양에서도 민들레의 효능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에 샐러드 등의 음식으로 즐겨 먹었을 뿐 아니라 약초로도 많이 활용됐다. <br/><br/><br/><br/> 빙빙한의원 원장(한의기능영양학회장)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6.txt

제목: 다음달 10일까지 ‘의학특강 암(癌)행어사’  
날짜: 20170207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7104005005  
ID: 01100501.20170207104005005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의학특강을 연다. 국제성모병원은 오는 3월 10일까지 5주에 걸쳐, 월∼금요일 오후 9시 45분부터 10분간 OBS TV에서 ‘의학특강 암(癌)행어사’란 프로그램으로 △암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암을 이길 수 있는 식생활 △암을 이기는 운동 △다빈도 암의 진단과 치료 이후 관리 △진화하는 암 치료 서비스 등에 대해 강의한다고 7일 밝혔다.<br/><br/><br/><br/>국내 암치료는 의학 발전으로 암 생존율 64.9%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랐지만, 암 환자들이 치료 후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김준식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대국민 의학특강은 범람하고 있는 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암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암 관리 정보 제공을 통해 암 극복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span>”고 말했다.<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7.txt

제목: ‘펌프’ 기능 상실하는 심부전, 돌연사 위험  
날짜: 20170207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7104005003  
ID: 01100501.2017020710400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寒波에 특히 취약한 ‘심혈관계 질환’ 주의보<br/><br/><br/><br/>심부전, 호흡 곤란·부종 등 증상<br/><br/>심혈관계 사망자 45%가 돌연사<br/><br/>고혈압·흡연자 등 동맥경화 우려<br/><br/><br/><br/>1주일에 3∼5번 규칙적인 운동<br/><br/>소금섭취 줄이고 적절한 수면을<br/><br/><br/><br/>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혈관 건강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높아져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책임지고 있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심부전’ 환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난 팝 가수 조지 마이클의 사인도 심부전으로 알려졌다. 심부전은 심장이 원래의 ‘펌프(Pump)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전신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이런 심부전 증상이 호흡곤란, 부종, 심한 피로감 등으로 노화 증상과 유사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돌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평소 혈압이 높은 중장년층은 심장 건강을 점검해 봐야 한다.<br/><br/><br/><br/>◇심부전 10명 중 약 7명은 노화 증상 인식 = 심부전 환자는 심장이 산소가 있는 피를 전신으로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어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운동을 하거나 활동이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지만, 증상이 진행되면 가만히 있을 때도 숨이 차고 잠을 자다가 숨이 차서 깰 정도로 심해진다. 이외에도 주로 종아리 등 하지의 부종이 나타나고 심한 피로감도 동반된다. <br/><br/><br/><br/>심부전은 단일 질환이 아니라 심장에 영향을 주는 수없이 많은 심장질환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해 ‘심장질환의 종착역’으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다 보니 증상이 있어도 대부분 이를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대한심장학회 심부전연구회와 한국심장재단이 성인 남녀 1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심부전 증상을 정상적인 노화현상으로 생각했다. 또 응답자 10명 중 8.6명은 심부전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등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심부전은 부담을 견디다 못한 심장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아 암과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높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 통계에 따르면 심부전 환자는 최근 6년(2010∼2015) 사이 21% 이상 증가했고, 심부전 진료비도 같은 기간 53% 이상 증가했다.<br/><br/><br/><br/>◇겨울철 혈관건강 관리 필수 = 겨울철은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다. 심부전 환자 중 사망한 경우를 분석한 결과 심혈관계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돌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겨울철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 말초동맥이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해 심장에 대한 부담을 늘린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급상승해 뇌출혈 위험도 증가한다.<br/><br/><br/><br/>이런 돌연사 위험은 사전 증상 없이도 나타날 수 있다. 돌연사는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 심부전 등 주로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서도 뇌출혈로 흔하게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해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라든지 노인, 흡연자 등은 동맥경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 추운 아침에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특히 과음과 흡연을 과도하게 한 다음 날 아침은 심장 돌연사 위험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아침 찬 공기를 맞는 것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br/><br/><br/><br/>◇소금 줄이고, 잠 보충 등으로 돌연사 예방 = 평상시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핀란드의 경우 하루 평균 12g 섭취하던 소금 양을 9g 미만으로 줄인 결과, 심장질환 및 뇌졸중 사망률이 7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절한 수면도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다. <br/><br/><br/><br/>양광익 순천향대 의대 신경과 교수의 ‘한국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주말 수면 보충과 고혈압의 연관성’ 논문에 따르면 주중 수면이 불충분한 사람이 주말에 1시간의 보충 수면을 했을 때 고혈압 위험도가 39%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반대로,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에 그치면 고혈압 위험도가 1.7배 높아진다. 주중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주말에 1∼2시간 잠을 보충하면 고혈압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 혈관 건강의 ‘적’인 흡연은 피하고, 1주일에 3∼5번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심장에 부담을 주는 과식도 피한다. <br/><br/><br/><br/>중요한 것은 심부전 증상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다. 일을 하고 있다면 충분한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를 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br/><br/><br/>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8.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대국민 암특강 시작  
날짜: 20170206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6172005002  
ID: 01100501.20170206172005002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의학특강을 연다. <br/><br/><br/><br/>국제성모병원은 3월 10일까지 5주에 걸쳐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오후 9시 45분부터 10분간 OBS TV에서 ‘의학특강 암(癌)행어사’란 프로그램으로 △암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암을 이길 수 있는 식생활 △암을 이기는 운동 △다빈도 암의 진단과 치료 이후 관리 △진화하는 암치료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br/><br/><br/><br/>국내 암 치료는 의학의 발전으로 암 생존율 64.9%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랐지만, 암 환자들이 치료 후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김준식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대국민 의학특강은 범람하고 있는 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암 환자분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암 관리 정보 제공을 통해 암 극복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29.txt

제목: 청소년상담사 급증…청소년 자살 등 사회상 반영  
날짜: 20170206  
기자: 정유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6142006001  
ID: 01100501.20170206142006001  
카테고리: 사회>환경  
본문: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돕는 청소년상담사 배출이 해마다 늘고 있다. 청소년 자살 등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br/><br/><br/><br/>여성가족부는 해마다 양성되는 청소년상담사가 2013년 1227명에서 2015년 2147명, 지난해에는 3010명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상담센터 등에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위기 상황까지 직접 듣고 보호·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격검정(필기·면접시험) 합격 후 소정의 자격연수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2003년 처음 양성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만4463명이 배출됐다.<br/><br/><br/><br/>여가부는 자살이 2007년부터 꾸준히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청소년상담사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br/><br/><br/><br/>‘201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9~24세 청소년 사망 원인으로 자살이 10만 명당 7.4명(2014년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수사고(4.9명)와 암(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상담인력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여가부는 올해도 총 27회의 자격연수과정을 통해 3000명 이상의 청소년 상담사를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자격검정시험은 하반기 1회 시행되며 필기시험은 오는 9월 16일, 면접시험은 12월 2일~ 3일 시행될 예정이다. <br/><br/><br/><br/>정유진 기자 yoojin@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0.txt

제목: “고위험군은 年2회 · 2가지 검사 무료 꼭 이용하세요”  
날짜: 20170203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3142006022  
ID: 01100501.2017020314200602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월2일 - 간암의 날’ 선포한 성진실 대한간암학회장<br/><br/><br/><br/>“<span class='quot0'>국민에게 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제정했습니다.</span>”<br/><br/><br/><br/>성진실(연세대 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사진) 대한간암학회 회장은 3일 “<span class='quot1'>간암은 초기에 진단할 경우 충분히 나을 수 있으므로 정기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연 2회씩 정기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2월 2일을 간암의 날로 정하게 됐다</span>”고 밝혔다.<br/><br/><br/><br/>지난해부터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B형 간염 보유자, C형 간염 보유자, 간경변증 환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상반기 1회·하반기 1회씩 6개월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간 초음파검사·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성 회장은 “<span class='quot2'>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될 수 있지만, 간암 고위험군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검률은 40%가 안 된다</span>”고 지적했다. 간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간 절제술, 간이식과 같은 수술적 치료법 및 고주파 열 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높은 치료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학회에서 발표한 간암 병기별 5년 생존율에서도 나타난다. 간암을 1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52%, 2기는 36%다. 그러나 3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은 15%에 불과하고, 4기에 발견하면 6%대로 떨어진다. 따라서 간암 환자의 예후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br/><br/><br/><br/>성 회장은 “<span class='quot2'>전체 암 사망률 중 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 2위, 여성 4위를 차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환자 1인당 치료비는 평균 6700만 원으로 췌장암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br/><br/>간암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만성 간염, 간 경변 같은 간 질환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학회에 따르면 간암 환자의 70% 이상이 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상당수는 간 경변증을 갖고 있다. 성 회장은 “<span class='quot2'>간암의 날을 제정해 수검률을 높여 나가겠다</span>”고 강조했다. <br/><br/><br/><br/>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1.txt

제목: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브로콜리, 씨·새싹에 설포라판 많아… 소변 통한 독성물질 배출 도와  
날짜: 201702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201111005001  
ID: 01100501.2017020111100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과거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H W 부시(92)는 “<span class='quot0'>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했지만 그것을 먹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어서 지금도 브로콜리를 먹지 않는다</span>”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참 슬픈 일이다. 만약 그가 브로콜리를 먹었다면 브로콜리의 여러 좋은 성분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판단력, 리더십에 더욱 도움을 주었을 텐데…. <br/><br/><br/><br/>조지 H W 부시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 브로콜리는 우리 몸에 유익한 식품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타임지는 얼마 전 브로콜리를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로 선정했다. 왜 브로콜리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인지 차근차근 따져보자. <br/><br/><br/><br/>간은 인체의 청소부다. 몸에 유해한 성분들을 모두 걸러내 몸 밖으로 배출한다. 전문용어로는 이를 해독이라고 한다. 간의 해독 과정은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나뉜다. <br/><br/><br/><br/>간 해독의 첫 번째 단계는 독성물질을 독성이 덜한 물질로 전환하는 일종의 화학반응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새로운 독성 화학물질, 즉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항산화제를 이용해 독성 화학물질을 담즙이나 소변 등으로 배출하는 두 번째 단계의 해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소의 중간 산물인 활성산소가 체내에 쌓이면서 염증과 통증, 노화, 암 등을 유발한다.<br/><br/><br/><br/>브로콜리는 간 해독의 두 가지 단계 중에서 특히 중요한 두 번째 단계의 해독작용을 돕는다. 브로콜리의 씨나 새싹 속에는 설포라판(Sulforaphane)이 많이 들어있다. 설포라판은 해독물질로 1992년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브로콜리에서 발견한 성분이다. 브로콜리의 씨나 새싹에서 설포라판글루코시놀레이트(SGS)가 추출되는데 위장관에서 흡수될 때는 설포라판으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설포라판이 바로 인체 내에서 해독작용을 한다. <br/><br/><br/><br/>브로콜리 속의 설포라판은 두 번째 단계의 간 해독대사에 도움을 주면서 항산화 능력도 발휘한다. 설포라판은 세포 내의 전사인자, 즉 유전자 발현 조절 단백질인 Nrf2(Nuclear respiratory factor 2)를 자극한다. 그리고 Nrf2가 세포핵 속으로 들어가면 항암, 항산화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게 된다.<br/><br/><br/><br/>Nrf2는 간뿐만 아니라 체내의 다양한 장기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기관지를 보호해 기관지와 폐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줘서 당뇨와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유익하며 노인성 망막질환도 예방해준다. 퇴행성 질환인 치매와 파킨슨 예방 및 치유에도 좋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에너지가 상승토록 해 피로를 느끼지 않게 해주거나 지방산 대사를 도와 체중 감량 효과를 거두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br/><br/><br/><br/>항산화 성분으로 널리 알려진 강황의 쿠쿠민, 녹차의 폴리페놀, 포도씨의 레스베라트롤 성분도 Nrf2 활성화를 자극하며 이 같은 식품 섭취 외에 소식하는 습관과 가벼운 운동, 차가운 온도 역시 체내 Nrf2를 강화해 준다. <br/><br/><br/><br/>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과 관련된 흥미로운 동물 실험도 있다. 브로콜리를 피부에 미리 바르고 자외선을 쬔 쥐와 그렇지 않은 대조군 쥐를 비교했을 때 브로콜리를 피부에 바른 쥐는 괜찮았지만 바르지 않고 자외선을 쬔 쥐는 피부암에 걸렸다고 한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항암·항염증 작용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실험이었다. 동물 실험을 마친 연구원들은 브로콜리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를 최소한 72시간 이상 유지케 하며,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는 작용을 돕는다고 밝혀 주목 받았다.<br/><br/><br/><br/> 빙빙한의원 원장(한의기능영양학회장) <br/><br/>※이번 주부터 윤승일 원장의 ‘디톡스 푸드’를 새롭게 연재합니다. 윤 원장은 한의학에 영양학과 기능의학을 접목해 연구하는 한의기능영양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2.txt

제목: <연휴 읽을만한 책>모든 기기간 자동 연결·마음 읽는 디지털 비서… IoNT·AI의 ‘기묘한 신세계’  
날짜: 20170126  
기자: 김인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26104005005  
ID: 01100501.201701261040050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세계미래보고서 2055 / 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 비즈니스북스<br/><br/><br/><br/>정유년 새해의 트렌드를 매우 단순하게 예측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디지털 vs 아날로그. 테크놀로지는 엄청나게 발달하며 매번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테지만 기술이 몰고 온 변화가 깊고,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할 속도가 빠를수록 인간적인 삶에 대한 물음도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기술과 테크놀로지를 따라가면서도 마음 한쪽엔 문명이 안기는 편리함과 피곤함에 거리를 두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열망의 온도는 올라갈 것이다. 설 연휴, 이 양측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책들을 전한다. <br/><br/><br/><br/> 조상의 음덕(蔭德)을 기리면서 동시에 자손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설 연휴는 어떨까.<br/><br/><br/><br/>새해가 되면 미래예측보고서가 쏟아진다. 수년에서 수십 년 앞선 미래 사회를 예상하는 분석서들이다. 이 중에서도 ‘세계미래보고서 2055’(비즈니스북스)는 전문성과 정보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이번 설 연휴에 읽어볼 만한 ‘한 권의 책’으로 손색이 없다.<br/><br/><br/><br/>세계 20여 개 국제미래연구 기구의 한국대표인 저자는 유엔미래포럼을 통해 그동안 해외의 미래 예측을 국내에 발 빠르게 전해 왔다. 이번에도 세계적인 미래학자와 첨단기업들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2055년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br/><br/><br/><br/>새로운 과학적 성과들이 풍부하게 소개된다. 세상을 바꿔놓을 과학의 위대함에 새삼 혀를 내두르게 된다. 2055년까지 살면서 풍요로운 ‘유토피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진다.<br/><br/><br/><br/>그러나 성장과 발전엔 항상 대가가 따른다. 등장하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도 있다. 꿈 같은 미래에는 디스토피아적 위협도 도사리고 있다. <br/><br/><br/><br/>◇메가트렌드: 나노사물인터넷, 개방형 인공지능<br/><br/><br/><br/>세계경제포럼이 2016년에 발표한 ‘메가트렌드 10’으로 2055년 미래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개관해볼 수 있다.<br/><br/><br/><br/>사물인터넷(IoT)이 나노(10억분의 1) 테크놀로지와 결합해 나노사물인터넷(IoNT)으로 발전한다. IoT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분야다. 앞으로 3년 안에는 더욱 폭발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와이파이를 대체할 미래 통신기술인 라이파이(Li-Fi)가 구현되면 인터넷 속도는 지금보다 최대 100배 빨라지고 모든 기기는 자동 연결된다. <br/><br/><br/><br/>IoNT는 나노센서를 이용한다. 훨씬 상세하고 저렴한 기업, 도시, 국가의 지도를 가질 수 있다. 심지어 우리 몸속 지도도 가능하다. 수십억 개의 나노센서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실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와 안전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장애요소다.<br/><br/><br/><br/>2030년이 되면 태양광이 최고의 전력 생산 수단이 된다.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등 기존의 시설은 붕괴된다. 현재는 태양광 전지의 성능이 낮지만 약 15년 후에는 효율 높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가 나와서 화석연료를 대체한다. 실제로 1976년 와트당 100달러였던 태양광 패널은 현재 와트당 40센트까지 떨어졌다.<br/><br/><br/><br/>블록체인(Blockchain)이 현실화된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공개 거래 장부다.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에 적용돼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여줘 데이터 위조나 해킹을 막는 수단이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개인은 보험 계약 등을 은행 계좌 없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주식을 중개인 없이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은행, 변호사, 브로커의 전문 중개인 역할은 사라진다는 얘기다.<br/><br/><br/><br/>사람이 움직이던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 자율주행차다. 이미 평행주차, 차선유지, 비상제동 등은 운전자가 손 대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기술 성숙과 함께 법적 규제의 벽이 낮아지면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편리함의 증가다. 그러나 택시기사, 주차장, 톨게이트,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처리 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br/><br/><br/><br/>인간을 대신하는 ‘디지털 비서’가 등장한다. 애플의 시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등이 이미 ‘개방형 인공지능 생태계’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식당이나 미팅 장소를 추천한다. 아직 초보적 단계지만 몇 년 안에 우리는 어디에서나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통해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심리 상태를 감지하는 ‘상황지성’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은 인간 비서를 능가하는 일도 수행할 수 있다. <br/><br/><br/><br/>이 밖에도 실리콘 웨이퍼를 대체할 신재료인 페로브스카이트, 동물 생체 실험을 바꿀 인체 장기 칩, 콘크리트 대신 사용되는 그래핀(단일 격자층 탄소)과 보로핀(붕소), 빛을 이용하는 광유전학 등은 지구의 미래를 혁신할 근거가 되고 있다.<br/><br/><br/><br/>◇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직업은 없다<br/><br/><br/><br/>미래연구 싱크탱크인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예측한 2055년의 세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br/><br/><br/><br/>인도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2대 경제국이 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영국은 더는 세계 10대 경제국에 포함되지 못한다. 세계 10대 경제국은 중국,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일본, 러시아, 나이지리아, 독일 순이다.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의 급상승이 두드러진다.<br/><br/><br/><br/>세계 인구는 96억 명에 이른다. 자연히 식량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인간 수명은 길어진다. 2055년 전 세계의 평균 기대 수명은 76세로 추정된다. <br/><br/><br/><br/>2030년쯤에는 최근 거론되기 시작한 기본소득제도가 보편화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와 자아실현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의회는 소멸하고 정부는 축소된다. 전 세계는 1일 생활권에 들어온다. 시속 3000㎞의 하이퍼루프 진공자기부상열차가 이를 가능하게 만든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다.<br/><br/><br/><br/>그러나 명(明)이 있으면 암(暗)도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안전한 직업은 없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관련된 일자리는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 로봇 전문업체인 핸슨 로보틱스의 수석 과학자인 벤 고르첼 인공지능협회장은 최근 ‘로바마’(Robama)라는 정치로봇을 만들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로봇을 합성한 것이다. <br/><br/><br/><br/>의사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인공지능은 특히 의료 분야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 의사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교육이 필요 없으며, 심지어 더 정확하다. 2016년 현재 국내 가천대 길병원은 IBM의 ‘왓슨’을 도입해 암을 진단하고 있다.<br/><br/><br/><br/>인공지능과 바둑 고수의 대결, 인간 신체의 극저온 보존, 유전자 가위 기술, 가상현실 시장 등은 지금부터 30여 년 전, 상상 속에서만 예측됐던 미래의 과학이었으나 이미 대부분 현실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30여 년은 이보다 훨씬 큰 변화가 닥쳐올 것이 분명하다. 미래에 대비해야 할 때다. <br/><br/><br/><br/>김인구 기자 clark@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3.txt

제목: 유명 톱모델, ‘간성(間性)’ 고백…“금기 깨고 싶었다”  
날짜: 2017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25172006001  
ID: 01100501.2017012517200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벨기에 출신 톱모델 하네 가비 오딜리(29)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 ‘간성(間性·intersex)’이라고 고백했다고 24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br/><br/><br/><br/>간성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혼합돼 태어나는 성을 지칭한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7%가 간성이다. <br/><br/><br/><br/>오딜리는 “지금 내 인생에서 금기를 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 이 시점, 이날, 이 나이는 (성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완벽하다”고 말했다.<br/><br/><br/><br/>그녀는 자신처럼 간성인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간성 어린이가 부모의 뜻에 따라 불필요한 수술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게 됐다고 털어놨다. <br/><br/><br/><br/>잠복고환(undescended testicle) 상태로 태어난 오딜리는 10살에 제거 수술을 받았다.<br/><br/><br/><br/>그녀는 “부모님이 제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 평범한 여성으로 자랄 수 없다고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br/><br/><br/><br/>오딜리는 18살에 자궁 재건을 위해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br/><br/><br/><br/>그녀는 “간성으로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두 차례의 수술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며 “(수술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밝혔다.<br/><br/><br/><br/>오딜리는 보그, 엘르 등 패션 잡지 모델로 활약했으며 마크제이콥스, 샤넬, 지방시,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의 런웨이 무대에도 수차례 등장했다.<br/><br/><br/><br/>간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br/><br/><br/><br/>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해 칠레 보건부가 간성 어린이에 대한 ‘정상화 수술’을 중단하도록 한 안내문을 발표했고, 지난 12월 미국 뉴욕에서는 성별을 간성으로 표기한 첫 출생증명서가 발급됐다고 전했다. <br/><br/><br/><br/><연합뉴스><br/><br/>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4.txt

제목: 본보 ‘살며 생각하며’ 글 연재 정미경 작가 별세  
날짜: 2017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9145006010  
ID: 01100501.20170119145006010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이상문학상을 받은 중견작가 정미경 씨가 18일 오전 4시 30분 타계했다. 57세.<br/><br/><br/><br/>암으로 투병 중이던 고인은 최근 병세가 악화하던 중 급성폐렴에 따른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br/><br/><br/><br/>1960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장밋빛 인생’으로 2002년 오늘의작가상, ‘밤이여, 나뉘어라’로 2006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 <br/><br/><br/><br/>고인은 ‘푸른 광장’‘살며 생각하며’ 등 문화일보 지면을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통찰력 있는 에세이를 선보여 사랑받았다. 그가 문화일보 2014년 12월 5일자에 쓴 ‘살며 생각하며-오직 당신을 위한 시간, 12월’에는 삶에 대한 경건한 태도와 함께 열정이 묻어난다.<br/><br/><br/><br/>“12월은 그런 달이다. 가슴에 주홍의 표식을 단 열한 마리의 말이 발목이 접질린 채로, 발바닥에 돌이 박힌 채로, 지치고 목마른 채 내게 돌아오는 시간이다. … 촛불을 켜놓고 사랑하는 이와 마주 앉아 ‘당신의 눈동자를 위하여 건배!’해야 할 시간이다. 곧 당신이 올라타 다시 힘차게 달려야 할 일월의 말이 저만치서 또각또각 다가오고 있으니. 여전히 달려갈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br/><br/><br/><br/>유족으로는 동양화가인 김병종 서울대 미대 교수, 아들 지훈·지용 씨가 있다. 빈소는 한림대성심병원, 발인은 20일 오전 8시. 031-386-2345. <br/><br/><br/><br/>김인구 기자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5.txt

제목: 바이든 “오바마도, 나도, 서로 진심 숨긴 적 단한번도 없어”  
날짜: 20170118  
기자: 손고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8142005007  
ID: 01100501.20170118142005007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NYT서 8년 소회 밝혀<br/><br/>“걸을 수 있는 한 뛸 것”<br/><br/>정계에 머무를 것 시사<br/><br/><br/><br/>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사진) 미국 부통령이 지난 8년간의 여정과 향후 미래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단 한순간도 거짓으로 대한 적이 없었던 그는 “걸을 수 있는 한 뛸 것”이라며 앞으로도 완전히 정치에서 떠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br/><br/><br/><br/>17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미 대선을 전후해 몇 차례 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투 등에서 인터뷰를 가졌던 바이든 부통령을 조명했다. 그는 퇴임 후 자신이 78세가 되는 2020년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언급하던 중 “<span class='quot0'>출마할 것이다(I will run)</span>”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2020년은 차기 미 대선이 예정된 해다. 하지만 그는 이내 “<span class='quot0'>내가 걸을 수 있는 한(If I can walk)</span>”이라고 덧붙여, 향후 행보에 대한 예측을 열어놓았다. 바이든 부통령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 내외에서 목소리를 내는 역할은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br/><br/><br/><br/>바이든 부통령은 상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 좋게만 생각하진 않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너무 서두른다고 생각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다소 거만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이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각별한 사이로 변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span class='quot1'>(바이든이) 나에게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그가 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말하지 않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span>”고 말했다.<br/><br/><br/><br/>바이든 부통령은 대선캠페인 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제대로 조언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면서 대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선거 유세 기간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왜 부적합한지를 주로 얘기했을 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중산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span>”고 밝혔다. 또 중산층 감세 정책을 백악관에 있는 동안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br/><br/><br/><br/> 이미 대선 전부터 바이든 부통령은 그의 퇴임 후 계획을 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모교인 델라웨어대의 미국정치 연구기관과 펜실베이니아대의 외교정책 연구기관에 몸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15년 장남 보를 뇌종양으로 잃은 후 맡았던 암 치료 및 연구 사업 ‘캔서 문샷’에도 향후 계속 헌신하겠다고 밝혔다.<br/><br/><br/><br/>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6.txt

제목: <약차 동의 보감>유근피차, 떫은맛 성분 호흡기 기능 강화 · 기관지 점액 분비 촉진  
날짜: 2017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8113005002  
ID: 01100501.20170118113005002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염증(厭症)난다’는 표현이 있다. 흔히 달갑지 않은 생각이나 체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짜증이나 싫증을 느낄 때 쓰는 표현이다. 국가나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볼 때 이런 염증을 느끼기도 하며, 스스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갈 때 사는 것에 염증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한다.<br/><br/><br/><br/>많이 듣는 염증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 아플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염증(炎症)’이다. 염증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요인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내부요인으로 세포조직에 손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내 몸의 방어 작용이다. 흔히 염증반응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조직에 손상을 준 미생물, 독소 따위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손상의 결과로 생기는 괴사 세포, 조직 등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회복 과정이다.<br/><br/><br/><br/>이는 마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염증(厭症)이라는 감정을 자주 느끼면 과거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롭게 일을 찾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문제는 이러한 염증이 과도하거나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이다. <br/><br/><br/><br/>느릅나무의 뿌리껍질인 ‘유근피(柳根皮)’는 이러한 염증 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소염제이다. 유근피는 혈액순환을 도와 혈관 속 염증을 유발하는 이물질을 분해, 제거해 배출하는 과정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작용은 병든 부분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배양해내는 염증 반응의 기초가 된다. 이 때문에 유근피는 위염이나 위궤양, 방광염과 같은 각종 염증 증상뿐만 아니라 수술 후 회복 과정에도 두루 쓰인다.<br/><br/><br/><br/>느릅나무는 비염, 축농증, 기관지염 증상에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코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유근피의 떫은맛은 탄닌 성분과 사포닌 성분에 기인하는데, 이 성분들이 호흡기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지 점액의 분비를 촉진해 주기 때문이다. 특히 독성이 없고 부작용 걱정이 적어서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사용이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복용하기에 적격이다.<br/><br/><br/><br/>또한 유근피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인 피토스테롤과 테타-시토스테롤은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을 예방해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암의 예방 및 관리 목적으로 많이 사용돼 4대 항암약초 중 하나로 꼽힌다. 세포 조직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은 암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인데 학계에서도 유근피의 소염, 항균 작용이 이러한 암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br/><br/>유근피를 차로 마실 때는 잘 건조된 유근피 40g 정도를 물 2ℓ에 담고 끓여준다. 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 약불로 줄여 물의 양이 절반 정도 될 때까지 더 끓여준다. 이렇게 끓인 후 유근피를 바로 건져내면 안 되고 2시간은 그대로 두고 식히는 것이 좋다. 유근피에서 나오는 끈끈한 진액이 약성을 발휘하는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진액이 충분히 우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후 건더기를 걸러내고 나머지 찻물은 냉장보관을 했다가 하루 3회 식전 30분 100㎖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다.<br/><br/><br/><br/>느릅나무는 증상에 따라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다. 위장관의 염증과 궤양 증상에 율무를 같이 넣으며 방광염, 전립선염 등으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에는 옥수수수염이나 늙은 호박을 같이 넣어 달여 마시면 좋다. 또한 유근피를 물에 담그면 나오는 진액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br/><br/><br/><br/>윤강대 차서레시피 한의사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7.txt

제목: “혼자 살면 어때”… 일본 女작가 3인방 유쾌한 독설  
날짜: 20170118  
기자: 최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8103010002  
ID: 01100501.20170118103010002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 요코·준코·지즈코… 에세이집 韓 출판가 강타<br/><br/><br/><br/>결혼·아이·일·가족·죽음…<br/><br/>기존 관념에 대한 비틀어보기<br/><br/>‘자기만의 삶 살아라’ 메시지<br/><br/><br/><br/>사회에 냉소적이지만 따뜻함<br/><br/>다양한 삶의 취향 존중·지지<br/><br/>20代부터 중년 여성까지 호응<br/><br/><br/><br/>“혼자라도 괜찮아. 아이가 없으면 어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하는 유쾌한 독설의 일본 여성 작가 3인방이 출판가를 휩쓸고 있다. <br/><br/><br/><br/>이 ‘당찬 언니’들은 세계적 베스트셀러 그림책 ‘100만 번 산 고양이’의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사노 요코(佐野洋子·1938∼2010), 2003년 아무리 멋진 커리어 우먼이라도 30대를 넘기고 결혼을 안 하고, 아이가 없으면 마케이누(負け犬·싸움에 진 개), 즉 인생의 패배자라는 내용의 책 ‘마케이누의 절규(負け犬の遠吠え)’를 출간해 일본 사회를 뒤집어 놓은 칼럼니스트 사카이 준코(酒井順子·50), ‘일본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 ‘두려운 사회학자’로 불리는 여성학자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69) 도쿄(東京)대 명예교수이다. <br/><br/><br/><br/>지난주 준코의 에세이집 ‘아무래도 아이는 괜찮습니다’(아르테)에 이어 이번 주 요코의 ‘문제가 있습니다’와 지즈코가 다른 사회학자와 함께 쓴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구요?!’(동녘)가 나왔다. 제목대로 ‘아무래도 아이는 괜찮습니다’는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여성들은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시선에, ‘비혼입니다만, 그게 어쨌다구요?!’는 결혼을 당연시하는 관념에 정면, 측면으로 딴지를 건다.<br/><br/><br/><br/>이들은 세대가 다르고 활동 분야도 다르지만 결혼, 아이, 일, 가족, 좀 더 넓게는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현대인들, 특히 여성들이 아프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기존 관념을 가볍게 비틀어 내던지고 남들이 뭐라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br/><br/><br/><br/>이들은 공통적으로 세상을 상당히 냉소적으로 쳐다보고 독설을 날리지만 놀랍게도 유머와 유쾌함을 잃지 않으며 중심을 잡는다. 무엇보다 이들은 삶과 취향의 다양성을 지지하며 그 맥락에서 자신과 세상을 품어내 20대부터 중년에 이르는 광범위한 여성 독자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 <br/><br/><br/><br/>이들 유쾌한 독설 산문집 인기의 출발점은 2015년 나온 요코의 ‘사는 게 뭐라고’(마음산책)이다. 두 번 결혼, 두 번 이혼을 거치고 아들과 매우 독립적으로 살던 요코가 말기 암 선고를 받은 뒤 풀어낸 넘치게 솔직한, 그래서 유쾌하고 마음이 찡한 이 에세이집이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자 다른 출판사들이 요코 잡기에 나섰다. ‘사는 게 뭐라고’는 6만 부 이상 팔렸다. 그 뒤 요코의 ‘죽는 게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람이 부는 대로’ 등이 잇따라 출간됐고, 올해도 여러 권이 나올 예정이다. <br/><br/><br/><br/>요코의 배턴을 이은 작가가 준코다. ‘100세 인생’ 시대에 중년 여성이 겪는 불안과 갈등, 당혹감과 비애를 친구와 수다를 떨듯 솔직히 풀어낸 ‘저도 중년은 처음입니다’(바다) 역시 30대 이상 독자들의 관심을 끌며 출간 2개월 만에 4쇄 6000부가 팔려 나갔다. 상당한 선전이다. 이런 흐름 속에 지즈코의 솔직한 에세이 ‘느낌을 팝니다’가 지난해 출간되면서 그 역시 이론적인 여성학자 이미지를 깨고 3인방 대열에 합류하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br/><br/><br/><br/>이들 책은 성공한 여성의 성공담이 아니고 선배들의 ‘가르침’도 아니다. 결혼, 이혼, 아이 문제 등으로 편치 않은 사회적 시선을 받았던 이들이 자신이 받았던 불편한 시선과 이로 인한 상처까지 드러내면서도 당당한 자기 삶을 통해 이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준다. 여성 독자들의 환대를 받고 있는 이 책들은 작은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드러내 20대 여성들의 열광을 끌어낸 소설가 요시모토 바나나-싱글 여성의 작은 슬픔과 작은 기쁨을 담담하게 묘사해 팬덤을 형성한 만화가 마스다 미리라는 ‘여성 공감 서사’ 계보를 잇고 있다. <br/><br/><br/><br/>마음산책 정은숙 대표는 “<span class='quot0'>나이로는 중년 이상 작가들인데, 20대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결혼, 아이, 일, 자기만의 삶과 같은 주제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span>”이라고 했다. ‘꼰대’가 아닌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언니’들의 유쾌하고 당찬 이야기, 절절하지만 냉정과 유머를 잃지 않는, 품위 있는 이들의 수다가 사회는 변했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벽을 느끼는 여성 독자들에게 소구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r/><br/><br/><br/>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일러스트 = 아르테 제공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8.txt

제목: 시행 12년 ‘국가 癌검진 사업’ 국민 57.3%가 “모른다” 답변  
날짜: 20170116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6143005002  
ID: 01100501.20170116143005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수검 ‘10명중 6명 꼴’ 그쳐 <br/><br/>癌발생률, OECD평균 이상 <br/><br/>“체계적 홍보전략 수립 필요”<br/><br/><br/><br/>정부가 지난 12년 동안 시행해온 ‘국가 암 검진’사업에 대해 절반이 넘는 국민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br/><br/><br/>연구팀은 정부가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비 등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사업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저조한 탓에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이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br/><br/><br/><br/>16일 한국보건의료산업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한국 국민의 국가암검진사업 인지와 수검의도 간의 관련성’(강정규 청주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김재우·김성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논문에 따르면 성인 354명을 대상으로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7%(151명)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57.3%, 203명)보다 적었다. <br/><br/><br/><br/>이런 이유로 국가 암 검진이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한 사람은 25.7%(91명)에 그쳤고,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국민은 36.5%(129명)나 됐다.<br/><br/><br/><br/>연구팀은 정부가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상당수 국민이 암 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br/><br/><br/><br/>실제, 국가 암 검진 수검 의도(검진을 받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영향분석결과,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수검 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753배 높았다. <br/><br/><br/><br/>2015년 현재 우리나라 암 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65.8%에 그쳐, 국민 10명 중 4명은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br/><br/><br/><br/>연구팀은 “정부는 국립암센터와 12개 지역암센터에 각각 국가암정보센터와 암 교육·홍보팀을 설치하고 2015년에만 홍보비 37억 원 등 총 252억 원을 썼지만, 절반이 넘는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암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br/><br/><br/><br/>한편, 2014년 기준 한국인 총 사망자 26만7692명 가운데 암 사망자는 7만6611명(28.6%)으로 사망원인 1위를 기록했다. <br/><br/><br/><br/>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암 발생률(2012년 기준)도 인구 10만 명당 285.7명으로 OECD 평균 270.3명보다 높다.<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39.txt

제목: ‘묻는 것’을 멈추지 마라… 땅에 묻히는 그날까지  
날짜: 20170113  
기자: 최현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3102005004  
ID: 01100501.20170113102005004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사람으로 산다는 것 / 헤닝 만켈 지음, 이수연 옮김 / 뮤진트리<br/><br/><br/><br/>‘발란더 형사’ 시리즈로 유명한 스릴러 문학의 거장인 스웨덴 작가 헤닝 만켈(1948∼2015)은 2014년 예순여섯 살에 말기 암 진단을 받는다. 그때 그는 자신이 여덟 살이던 해 겨울, 마을 호수에 빠져 익사한 소녀의 모습과 함께 죽음을 떠올렸다. 자율 소방대원들이 사용한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에 걸려 나온 경직된 소녀의 시신을 멀리서 봤을 때 느꼈던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공포는 다시 잡지에서 읽은 모래 늪에 빠진 사내 이야기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졌다. <br/><br/><br/><br/>이야기 속에서 카키색 유니폼을 입고 어깨에 총을 멘 탐험가는 모래 늪에 발을 디디자마자 꼼작할 수 없이 빠져버렸다. 모래에 빠지지 않으려 발버둥 치지만 모래는 남자를 삼켜, 그의 숨을 끊어버렸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도 카키색 유니폼의 사내처럼 버둥거렸다. 그는 엄습하는 공포 속에서도 공포가 자신의 저항력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도록 버둥거렸다. <br/><br/><br/><br/>결국 그는 오래지 않아 깊은 모래 늪에서 기어 나와 자신에게 다가온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전을 받아들인 그가 한 일은 자기 삶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삶을 돌아보는 것이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찾으려 했다. 의미있는 삶은 무엇인지, 자신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었는지. 그 기준에 비춰 자신은 제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이었던 것 같다. 전 세계 40여 개 언어로 번역되고, 수천만 부가 팔린 만켈의 생애 마지막 에세이집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기록이다. <br/><br/><br/><br/>한 시대를 대표한 작가이자, 30대에 모잠비크에 극단을 세운 뒤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머물며 불평등한 세계의 현실과 고통을 알리는 일에 몰두했던 ‘행동하는 지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 온 힘을 다해, 전 생애를 돌아보며 찾아낸 삶에 대한 답을 명징하게 전하고 있으니 책을 펴든 독자로선 감사할 뿐이다.<br/><br/><br/><br/>그가 자기 삶의 출발이라고 기억해낸 시점은 1957년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다. 아홉 살이던 그는 등굣길에 충격적인 각성을 하게 된다. 제일 친한 친구가 아파 혼자 학교에 가게 된 그 날, “나는 나일 뿐. 다른 누구도 아니다. 나는 나다”라는 문장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한다. 새롭고 충격적인 통찰에 아홉 살 만켈은 오랫동안 추위 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순간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된다. 위대한 작가가 될 사람의 어린 시절은 좀 다른 듯하다. <br/><br/><br/><br/>이 시점에서 시작해 만켈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과 자기가 관통해온 시대의 중요한 지점들을 성찰한다. 소설과 연극으로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를 고발했던 만켈이지만 그는 숱한 개인적이고 세계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의지와 이성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br/><br/><br/><br/>그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은 ‘삶에 대한 애착과 생의 기쁨’이라고 했다. 이는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저 혼자 앉아 놀이와 자기만의 생각에 완전히 빠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아이와 같은 상태가 생의 생생한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라고 했다. 만켈은 생의 기쁨이 생생한 호기심, 지식욕과 결합할 때 우리는 인간을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br/><br/><br/><br/>“<span class='quot0'>행복이라는 말이 감정적이고 상업적인 방식으로 무가치하게 되어버린 후 약간 역겨운 단어가 되어버리긴 했어도 우리는 모두 번듯한 삶에 대한 애착 위에 세워진 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좇고 있다</span>”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 삶에서 삶에 온전히 집중해 삶을 생생하게 만든 시간이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길 권한다.<br/><br/><br/><br/>이와 함께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만켈은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는 능력’이라고 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이다”는 그는 “추운 겨울밤, 별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자문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은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인간의 얼굴은 질문으로 가득할 때 가장 진실하다”고 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질문을 던지되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질문을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묻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없는 듯이 어깨를 한 번 으쓱거리고는 일상을 이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까지 고집스럽게 묻기를 계속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br/><br/><br/><br/>그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새로운 생각들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했다. 좋은 삶이란 다른 사람들이 진실이라 말하는 것들에 의문을 던지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작가인 그에겐 그 길은 당연히 글쓰기였다. “중요한 이야기는 각성을 다룬다. 개인의 각성이든 아니면 전체 사회의 각성이든, 혁명에 의한 각성이든, 자연재해에 의한 각성이든 간에. 글을 쓴다는 일은 내가 가진 손전등으로 어두운 구석들을 비추고 전력을 다해 다른 이들이 숨기려는 것을 밝히는 일이어야 한다.” <br/><br/><br/><br/>이 책 또한 그의 각성이며 그는 자신의 각성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각성을 요구한다. <br/><br/><br/><br/>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40.txt

제목: 보험업계 첫 간편 심사로 뇌졸중 보장  
날짜: 20170112  
기자: 김충남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2142006006  
ID: 01100501.2017011214200600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해상 ‘간단 보험’ 출시<br/><br/><br/><br/>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간편심사(Simplified Issue)로 뇌졸중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현대해상은 간편심사 보험인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사진)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br/><br/><br/><br/>간편심사 보험은 △5년 내 암 진단 또는 암 치료 여부 △2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3개월 내 의사의 입원·수술 등 검사소견 여부 등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류제출이나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은 간편심사를 통해 뇌졸중을 보장해준다. 또 후유증이 남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뇌졸중의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br/><br/><br/><br/>아울러 ‘표준체(건강한 사람) 전환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인하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유병자 상태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건강이 회복되면 계약 갱신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건강한 사람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받는다. <br/><br/><br/><br/>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41.txt

제목: <時評>반기문 待望論의 명암  
날짜: 2017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2122005002  
ID: 01100501.20170112122005002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br/><br/><br/><br/>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기문 열풍(熱風)이 불고 있다. 마포를 비롯해 서울에만도 여러 곳에 반기문 대선 캠프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며,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지난 일요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기문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포 캠프’ ‘반사모’와 유사한 자문 그룹 또는 지지 그룹들이 전국에 있다고 한다.<br/><br/><br/><br/>반기문은 이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상수(常數)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인천공항은 대규모 인파로 북새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내일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해 귀국인사를 하고, 이어 대규모 귀국보고회 겸 대선 후보 출정식도 했을 것이다.<br/><br/><br/><br/>사실 반기문의 귀국은 참으로 환영할 일이고 또한 금의환향(錦衣還鄕)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남북 분단으로 유엔에 가입도 못했던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그것도 연임까지 하여 10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한 반기문을 위해 광화문에서 카퍼레이드를 해도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반기문’이란 이름은 한국은 물론 지구촌의 귀중한 자산이다.<br/><br/><br/><br/>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반기문을 맞이하는 정치 환경은 급변했다. 이 때문에 반기문은 인천공항 환영객을 최소화하고, 귀국 후 정치 일정도 가급적 요란스럽지 않도록 측근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더구나 친박 세력의 새누리당과는 물론 탈당 인사들이 창당하는 ‘바른정당’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자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br/><br/>반기문의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정치 행보가 전개될수록 반사모를 비롯한 지지 그룹들은 더욱 애타게 ‘대통령 반기문’을 외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이미 짐을 챙겨 반기문 캠프 쪽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으며, 바른정당도 생존을 건 구애작전을 펼칠 것이다.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반기문을 끌어들여 대선 흥행을 기대할 것 같다.<br/><br/><br/><br/>19대 대선 환경은 반기문의 신드롬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것이다. 특히, 보수 세력이나 이른바 중도를 표방하는 제3지대론자들은 반기문 신드롬을 통해 정치적 흥행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반기문 역시 꽃가마는 아니지만, 국내 정치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대선을 치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치 행보일 수 있다.<br/><br/><br/><br/>조기 실시가 예상되는 19대 대선에서 나타날 반기문 대망론(待望論)의 명과 암은 무엇인가? 우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浮上)한 반기문은 기존 정치권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에게 참신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국민은 기존 정치권의 경우, 여야 불문하고 부패한 구세력으로 보고 있어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열망하고 있으며, 반기문은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특정 정파에 속해 있지 않은 것도 유권자에겐 신선할 수 있다.<br/><br/><br/><br/>북한과 대치, 안보 위협이 상존하며, 더구나 한반도 주변 강대국이 스트롱맨으로 포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고도의 외교적 곡예가 필요한 우리로서는 10년간 국제무대에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한 외교관 반기문의 경험과 역량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br/><br/><br/><br/>그러나 이런 희망적인 관측에도 불구하고 반기문이 험지와 같은 한국 대선 캠페인 과정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교 현장과 정치 현장은 전혀 다른 공간이다. 더구나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검증은 지금까지 특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직 생활을 한 반기문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br/><br/><br/><br/>반기문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가 경영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한 것이 없다. 탄핵 정국 때문에 야기된 국론 분열에 대해 통합(統合) 또는 화합(和合) 리더십을 강조하고 지난 연말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했을 뿐, 빈부(貧富) 격차,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청년실업 문제, 심지어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2017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반기문 신드롬의 명암(明暗)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42.txt

제목: 희소질환 아이들, 주변 몰이해에 ‘정신적 상처’  
날짜: 20170110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10105005005  
ID: 01100501.2017011010500500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담도폐쇄증 등 소아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br/><br/><br/><br/>“1형 당뇨, 췌장 선천적 문제<br/><br/>비만으로 인한 2형과 다른데<br/><br/>약으로 낫는줄 알아 스트레스”<br/><br/><br/><br/>“잘 알려지지 않은 담도폐쇄증<br/><br/>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어<br/><br/>병원 갈 때마다 선생님 눈치”<br/><br/><br/><br/>만성·희소난치병 겪는 환아<br/><br/>정서회복 프로그램 마련해야<br/><br/><br/><br/>“담도폐쇄증이 있으면 안에 장기가 눌려 딱딱하게 굳고 커져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자체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자리에 앉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선생님들은 쉬는 시간엔 잘 놀다가 아프다고 하니깐 꾀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담도 폐쇄증 환아 보호자)<br/><br/><br/><br/>“둘째 아이가 아파서 둘째 아이만 신경 쓰고 관리를 하다 보니 큰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픈 아이도 중요하지만 아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부모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제1형 당뇨병 환아 보호자)<br/><br/><br/><br/>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이나 성인 당뇨와 같은 질병들은 인식이 확대돼 있지만 혈우병, 제1형 당뇨병, 파킨슨병, 대사장애, 모야모야병, 담도폐쇄증 등과 같은 만성·희소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질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br/><br/><br/><br/>특히,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매우 중요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이런 질환에 걸리면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들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주변의 ‘무배려’로 인해 정신적인 상처를 다시 입는 것이다. <br/><br/><br/><br/>실제 만성·희소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 질환에 대한 주변인의 선입견과 편견’을 사회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이해 부족’이 환아에게 상처로 = 어린 환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1형 소아 당뇨병’과 ‘제2형 소아 당뇨병’의 차이다. <br/><br/><br/><br/>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한 당뇨병을 소아 당뇨병으로 진단하되 두 가지가 구분된다. 이 중 선천적으로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병을 제1형 당뇨병이라 하지만 아직도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1형 당뇨병을 앓는 한 어린 환자의 어머니는 주변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br/><br/><br/><br/>“아이가 아프고 난 후 ‘아픈 건 괜찮아졌니?’라는 말이 정말 듣기 싫어요. 몇 번을 설명해도 제2형 당뇨병과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당뇨병이라고 하니 약 먹으면 낫는 줄 알고, 계속 얘기를 해도 잘 모르니 가끔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br/><br/><br/><br/>또 다른 환아 보호자도 “암이나 성인 당뇨 등 기본적인 질병은 인식이 잘 되어 있는데, 소아 당뇨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얼마 전에 친한 엄마가 ‘아이가 뚱뚱하지도 않은데…’ 이런 말을 해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br/><br/><br/><br/>선천성 희소병인 담도폐쇄증도 마찬가지다. 담도폐쇄증은 담도가 생성되지 않아 담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돼 간에 손상을 주는 질환이다. <br/><br/><br/><br/>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보호자는 “아이가 담도폐쇄증이 있다고 해도 외형상으로는 평범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프지도 않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다고 생각한다”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니까 병원에 가려고 학교에 조퇴나 결석처리를 하려고 해도 선생님들이 꼭 지금 가야 하는 거냐며 싫어한다”고 말했다. <br/><br/><br/><br/>또 다른 보호자는 “담도폐쇄증이 희소질환이고 아이한테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많은 선생님이 알고는 있지만, 아이가 아픈 애처럼 행동을 안 하니 잘 모른다”며 “설명을 해도 처음엔 ‘아~’하며 이해하는 것 같지만 병에 대한 인식까진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br/><br/><br/><br/>◇의료적 치료뿐 아니라 감정 치료도 필요 = 잘 먹고, 잘 크고, 잘 놀아야 할 시기에 식단을 제한하고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아들은 치료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 <br/><br/><br/><br/>환아가 의료적 치료와 관리에 대해 적응하더라도 쌓이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 반항으로 표출되거나 감정 조절이 힘든 상태가 되기도 한다. <br/><br/><br/><br/>따라서 의료적 치료뿐 아니라 환아들이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감정을 돌봐주는 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관리 지원은 환아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와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가 운영하는 ‘초록 산타 상상학교’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만성질환, 희소질환 등을 겪는 아이들이 미술, 음악, 연극,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스스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또 환아들의 형제, 자매와 부모 등도 함께 참여해 가족들도 정서 회복에 도움을 받고 있다. <br/><br/><br/><br/>2013년부터 3년 동안 정규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아 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자존감’ ‘가족관계’ 영역이 각각 11.8%, 8.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울’ 영역은 6.2% 감소했으며,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 영역 역시 5.8% 줄어들었다.<br/><br/><br/><br/>노자은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신체적 어려움뿐 아니라 관계적 측면에서의 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성·희소난치성 아동·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측면을 다양하게 자극하고 사회로의 건강한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br/><br/><br/>노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1'>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관련 지원사업들을 지원하는 등 만성·희소난치성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br/><br/><br/><br/>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43.txt

제목: “‘경제삼각벨트’ 만들어 자족도시 기반 마련”  
날짜: 20170109  
기자: 박양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09140006002  
ID: 01100501.20170109140006002  
카테고리: 미분류  
본문: 나진구 중랑구청장<br/><br/><br/><br/>서울 중랑구에는 구석구석 숨어있는 보물이 많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던 보물들을 발굴하고 잘 닦아서 빛이 나도록 한 이가 바로 나진구(사진) 중랑구청장이다.<br/><br/><br/><br/>지난 4일 집무실에서 만난 나 구청장은 “<span class='quot0'>나는 참으로 운이 좋은 행복한 구청장</span>”이라고 민선 6기 2년 6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br/><br/><br/><br/>그는 “<span class='quot0'>중랑구는 20여 년 전 부구청장으로 일했던 곳인데, 민선 구청장이 되어 다시 와보니 경제·교육·문화 인프라 등의 생활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뒤져서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지난 2년 6개월간 오랫동안 정체돼 있던 사업들이 하나둘 해결돼 중랑구에 기분 좋은 변화가 많이 생겼다</span>”고 했다. <br/><br/><br/><br/>이러한 변화에 따라 구민들이 “이제 중랑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과 희망을 갖기 시작했고, 낙후되고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를 벗고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br/><br/><br/><br/>그는 “중랑천 장미터널 일대에서 펼쳐지는 서울장미축제와 용마폭포공원을 활용한 인공암벽장 운영, 봉화산 화약고 부지에 조성되는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배요섭의 옹기터 복원 및 체험관 조성 등 우리 구의 지역 명소를 활용한 문화관광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br/><br/>그는 “올해에는 ‘자족도시 기반 다지는 사업’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베드타운(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지 역할을 하기 위해 대도시 교외에 형성된 도시) 이미지가 강한 중랑구를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봉·면목동 일대와 신내택지지구를 잇는 ‘경제삼각벨트’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이다.<br/><br/><br/><br/>그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성과로 ‘나찾소(나진구가 찾아가는 소통현장)’를 꼽았다. <br/><br/><br/><br/>‘소통 없는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2년간 24차례 ‘나찾소’가 열려 모두 3100여 명의 구민이 참여했다. 나찾소 현장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378건 중에 지금까지 282건이 처리 완료돼 74.6%가 해결되는 기록을 세웠다.<br/><br/><br/><br/>나 구청장은 “<span class='quot0'>‘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처럼 저와 공무원, 42만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분 좋은 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br/><br/>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44.txt

제목: 흥국화재, 한방 치료도 보장 ‘양한방 생활안심 건강보험’  
날짜: 20170106  
기자: 윤정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06113005003  
ID: 01100501.2017010611300500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실손의료보험의 미보장 영역인 한방 치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br/><br/>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양방과 한방 치료를 함께 보장하는 ‘양한방 생활안심 건강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비급여 한방 치료에 해당하는 첩약과 약침, 물리치료 등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입자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 설계라는 평이다. <br/><br/><br/><br/>아울러 암과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한국인 3대 질병에 대해서도 한방 치료를 보장한다. 또 상해·질병 수술이나 골절,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인한 한방 치료에 대해서도 100세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br/><br/><br/><br/>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도 챙길 수 있다. 3대 질병과 상해, 질병후유장해 80% 이상 진단 시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 된다. 양한방 생활안심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60세까지다. 납입 기간은 10년납과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br/><br/><br/><br/>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45.txt

제목: “건강보험공단 - 국립암센터 빅데이터 연계 부족”  
날짜: 20170104  
기자: 이용권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04141005011  
ID: 01100501.2017010414100501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지선하 연세대교수 논문 <br/><br/><br/><br/>개인정보보호 이유로 공유못해 <br/><br/>흡연 폐해 과도하게 낮게 추계<br/><br/><br/><br/>세계 최대 규모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관련 기관 간 상호 연계 부족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br/><br/><br/><br/>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따르면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NECA 공감 12월호’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부정확한 연구결과가 생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br/><br/><br/><br/>지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자료 사례를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검진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코호트를 구축하고 있지만, 코호트 연구에서는 질병 자료에 해당하는 암 발생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한 청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 청구자료만 집계되는 탓에 건강검진이나 수많은 비급여 암 환자 등의 자료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암 발생 환자 데이터가 많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 자료와 연계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br/><br/><br/><br/>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 흡연 여부에 따른 폐암 발생 관련성을 보면, 우리나라 빅데이터로는 비흡연자 대비 현재 흡연자가 갖는 폐암의 비교 위험도는 3배 정도에 그쳐,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고되는 10배와 차이가 크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최근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흡연자의 역설’(smoking paradox)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br/><br/><br/><br/>지 교수는 “<span class='quot0'>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연계가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흡연의 폐해가 과도하게 낮게 추계된다</span>”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span class='quot0'>국립암센터에서 2009년 발표한 흡연에 의한 폐암의 비교 위험도조차 외국 자료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로, 결국 이런 자료는 담배 소송에서 담배의 폐해를 줄이려는 담배회사의 변론에 사용돼 국민은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span>”고 밝혔다. <br/><br/><br/><br/>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46.txt

제목: 대전, 지자체 첫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날짜: 20170103  
기자: 김창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03144006005  
ID: 01100501.20170103144006005  
카테고리: 지역>대전  
본문: 충남대병원과 연계 이달부터 <br/><br/>月 5만원에 통증·심리치료<br/><br/><br/><br/>대전시가 말기암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통증 완화 등의 진료를 해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자치단체 재정으로 말기암 환자 가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은 대전시가 전국 처음이다. 대전시는 이달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억19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란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통증조절,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며 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일컫는다. <br/><br/><br/><br/>시는 충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뤄 호스피스 병동에서 받는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말기 및 진행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9%가 가정에서 지내길 원했고, 89.1%는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 의향이 있었다. 병동 호스피스 입원 이용 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월평균 60만∼80만 원인 데 비해 대전시가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한 달 8회 방문기준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정도로 경제적이다. <br/><br/><br/><br/>시는 지난해 6월 ‘대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관련 전문인력이 충남대병원에 확보돼 있는 등 지원여건이 성숙해 올해부터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연간 200명 정도의 말기암 환자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pan>”며 “<span class='quot0'>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외에 자치단체 차원의 가정방문 호스피스 진료지원은 대전이 처음</span>”이라고 말했다. <br/><br/><br/><br/>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

언론사: 문화일보-2-247.txt

제목: 에코세대 ‘삶 포기자’ 10년새 5배로  
날짜: 20170103  
기자: 김수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501.20170103114005002  
ID: 01100501.2017010311400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 통계청·보건사회연구원 분석<br/><br/><br/><br/>신용불량·취업난·생활고 원인<br/><br/>베이비붐세대도 2.2배로 증가<br/><br/>OECD 회원국 평균 2배 넘어<br/><br/>상실감 이겨낼 정서적 지지 필요<br/><br/><br/><br/>‘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도, 이들의 자녀인 ‘에코 세대’(1979∼1992년생·메아리 세대)도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끝내고 있다.<br/><br/><br/><br/>사업 실패를 비관한 60대 남성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조모(61) 씨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수면제 등을 복용한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경찰관이 발견했다. 조 씨는 사업이 부도난 뒤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br/><br/><br/>빚으로 생활고를 겪던 30대 남성도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김모(31) 씨가 자기 방에서 목매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직장인인 김 씨는 주식 투자 등에 실패하면서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br/><br/>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고의적 사망)은 주요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 자살률(2014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38개 회원국 평균 자살자 수가 10.2명(인구 10만 명당)이었던 데 비해 한국은 28.7명으로 2배가 넘었다.<br/><br/><br/><br/>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에서 △에코 세대는 2007년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증대, 취업난, 생활고 등으로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자살률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br/><br/><br/><br/>에코 세대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001년 4.8명에서 2011년에는 24.5명으로 5.1배가 됐다. 또 같은 기간 베이비붐 세대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18.3명에서 40.6명으로 2.2배가 됐다.<br/><br/><br/><br/>전문가들은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다방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3일 “<span class='quot0'>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복지뿐 아니라 정신과 상담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망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span>”고 조언했다. 안용민(전 자살예방협회장) 서울대 정신과 교수는 “<span class='quot1'>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br/><br/><br/>김수민·김성훈·김현아 기자 human8@munhwa.com <br/> <br/>[ 문화닷컴 바로가기 | 소설 서유기 | 모바일 웹 ]